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1부_법무법인(유한)지평 소개 4

1. 법무법인(유한) 지평	06
2. 지평의 비전과 가치	08
3. 2020 경영 KEYWORD	09
4. 사회적가치 경영 추진 현황	10
5. 이해관계자	11
6.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12
7. 중요성 평가	14

2부_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 16

1. 지평의 구성원	18
2. 구성원의 역량강화(교육과 훈련)	22
3. 인권과 안전	26
4. 노사간 협력	31

3부_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34

1. 지평의 업무영역	36
2. 사업성과	38
3. 신규업무개척	39
4. 법조윤리의 준수	42
5. 고객과의 소통	46
6. 법제연구	47
7. 법학 교육 지원	48

4부_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50

1. 지평의 공익활동	52
2. 법률 공익활동	56
3. 비법률 공익활동	60
4. 환경정책	62

APPENDIX

GRI 인덱스	68
UN 지속가능발전목표	73
UN 글로벌콤팩트	75
공익활동 평가지표	76
제3자 검증의견서	78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2020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



지평의 사회적 가치 경영과 지속가능성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 **임성택**

1. 지평은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2019년 사회적가치 경영을 선언하고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과 보고서 발간 이후 지평의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평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공익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익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그런데 지평의 공익활동은 변호사 또는 직원의 자원봉사이거나 과외의 활동이라는 인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평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리조직입니다. 다만, 지평은 꾸준히 로펌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밟아 왔습니다.

2019년 사회적가치 경영 선언은 지평이 경제적 가치 못지않게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언입니다. 물론 어떻게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더 고민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지평에 돈을 벌기 위해서 출근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인간적인 분위기, 좋은 목표, 선한 영향력, 고객에의 도움 등은 우리에게 중요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사회적가치 경영 선언은 지평이 좀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고 배포하고 보고서를 읽은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로펌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가치를 재차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로펌은 공익활동 뿐 아니라 지배구조, 채용, 업무, 고객관계, 법조사회에서 사회적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평은 지난 보고서 작성의 후속조치로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 더 자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2. 최근 ESG, 소셜임팩트, 기후위기 대응 등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평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선택의 영역에서 바라보던 것에서 최근 기업의 생존 자체가 ESG 경영 성과에 달렸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창립 이후 20여년 간 지속적으로 로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ESG 센터를 설립하여 기업이 ESG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회적가치를 높이고 국제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거대한 ESG 생태계를 조성해 변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3. 2020년에는 사회적 과제로 “지역 공동체 발전 프로젝트, 우리 함께”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선정된 과제는 아니었지만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사회적 과제의 실천이나 코로나19 대응에 관하여 지평의 사회적가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지평은 사내 공모전을 통해 “지역 공동체 발전 프로젝트, 우리 함께”를 전사적으로 추진할 사회적 과제로 선정하고 2020년 초에 이를 실천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연초에 세운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대신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평이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다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가까운 서대문경찰서와 관내 피해자·피해아동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거리두기로 수익이 감소한 영천시장 등의 지역상권 이용을 구성원들에게 권장하였습니다.

한편,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들에게는 코로나19라는 리스크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세미나 등을 활성화하여 접점을 확장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 활동 지원사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회적가치가 지평에게 어떤 의미인지, 돈을 벌기도 힘든 마당에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인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욱 토론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가치가 구성원 모두에게 더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2020년은 사회적가치 경영을 실천한 첫 해였지만, 해가 쌓이면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업무활동부터 사회적가치가 실천되기를 희망합니다.

4. 2021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지평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 경영 과제 또는 목표가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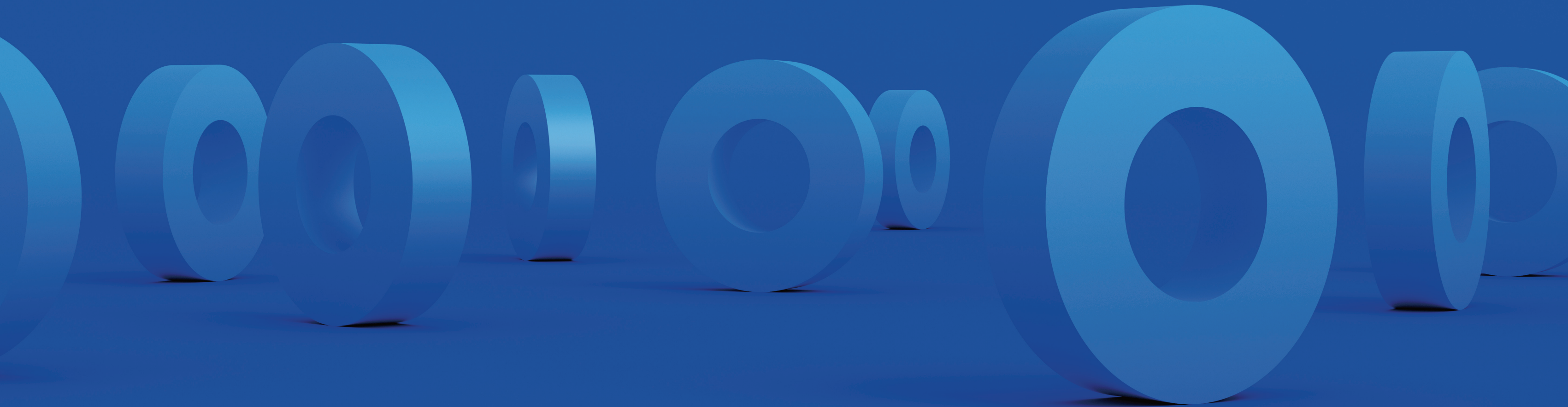
구성원들이 사회적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내재화하여 업무를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적가치 경영은 일부 구성원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지평의 노력을 알리고 구성원의 참여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점에 앞서 지평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자 합니다. 2021년에는 지평의 환경정책을 명문화하고,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하며,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실질적인 탄소감축방안을 마련하여 국내외 지평 사무소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검토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평이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의 존엄을 살필 수 있도록 인권정책도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가치를 높이는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1부 . 법무법인(유한) 지평 소개

법무법인(유한) 지평(이하 '지평')은 2000년 4월 3일 창립되어, 2020년 12월 31일 기준 268명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창립정신은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며 동시에 윤리성, 공익성 및 민주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지평은 '법률전문가 공동체'를 지향하며,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사회정의와 인권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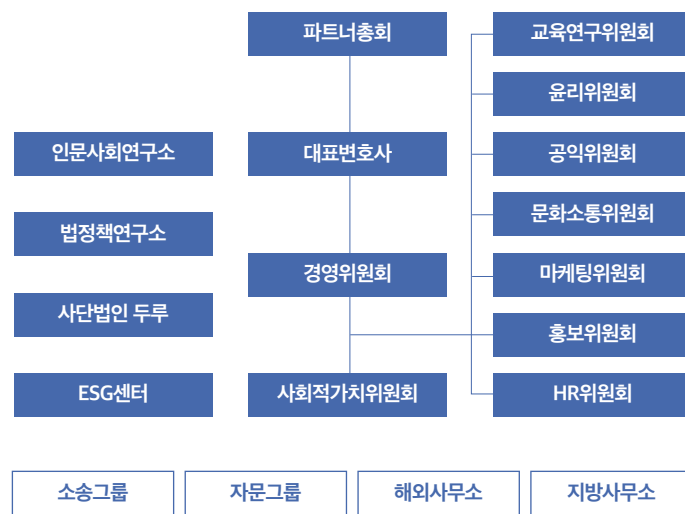
법무법인(유한) 지평

PROFILE

명칭	법무법인(유한) 지평 (JIPYONG LLC)
본사위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대표변호사	김지형, 양영태, 임성택
설립일	2000년 4월 3일

ORGANIZATION

지평은 각종 위원회를 통해 경영의 각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성원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지평은 공익위원회, 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마케팅위원회, 문화소통위원회, HR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는 전문가와 직원이 참여하여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구성원의 의견에 기초한 책임경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9-2020년 기간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에 주요한 시사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GOVERNANCE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른 특수법인(유한 법무법인)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변호사들의 파트너총회는 경영의 기본방침 및 지평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주요 경영 현안 등을 민주적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파트너총회에서 선출된 경영대표변호사와 경영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경영위원회가 파트너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사회적가치를 경영의 중요과제로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지형, 양영태, 임성택
경영위원	양영태, 김상준, 사봉관, 이소영, 이행규, 정원
사회적가치위원회	김지형, 양영태, 임성택, 김상준, 김영수, 서준호, 황인영, 권주연

SERVICES AND SPECIALTIES

지평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별, 분야별, 산업별로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고객의 필요를 정확히 진단하고 고객과 함께 위기에 대응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송 건설·부동산 / 금융·증권·보험 / 경영권분쟁·투자자소송 / 제조물책임·소비자분쟁 / IP·IT / 해상·항공 / 형사·헌법·행정 / 상속·가사·기업승계 / 조세 / 노동 / 도산 / 공정거래 / 언론 / 국제중재 / 상사·민사 / 의료 **자문(회사)** M&A / 회사법 / 기업자문 / 기업지배구조 / 해외투자 / 국제거래 / 도산 / 구조조정 / 조세 / 에너지 / 환경 / 바이오·제약·헬스케어 / IP·IT / 엔터테인먼트 / 공정거래 / 노동 / 공공정책 / ESG **자문(금융)** 부동산금융·실물투자 / 프로젝트 파이낸스 / 구조화 금융·파생금융 / 인수금융 / 선박·항공기금융 / 해외금융 / 금융규제·금융회사 / 사모펀드·PE / IPO·자본시장 / SOC **해외**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SOCIAL IMPACT

지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전업 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10여 명의 공익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은 인문학 발전 위에 법제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평인문사회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지평인문사회연구소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주축으로 인문, 사회, 경제, 역사 분야의 연구와 출판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평이 2012년 설립을 조력한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노동법에 정통한 법률가의 육성과 노동법에 대한 시민교육을 통하여 노동인권의 지평을 넓히고 노동법 실무의 논의 수준을 발전시키며, 노동인권 분야의 문제 해결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법률가 및 노동조합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밀 아카데미, 해밀포럼, 노동판례연구 등의 교육과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2021년 사단법인으로 지평법정책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연구소는 법률 전문성과 정책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연결하여 실사구시의 법, 인문적 기초 위에 선 법,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MEMBERS

지평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¹⁾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지평의 전체 구성원²⁾ 468명 중 전문가는 268명이고, 직원은 200명입니다. 로펌의 변호사는 구성원변호사(Partner)와 소속변호사(Associate)로 구분되는데 지평은 한국변호사 중 구성원변호사가 88명, 소속변호사가 112명입니다(지평은 소속변호사를 단순한 피용자가 아닌 장래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에서 예비구성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격국가 별로 나누면 한국변호사가 200명, 외국변호사는 49명입니다. 국내 로펌 중 해외사무소가 가장 많은 만큼 지평에는 다양한 국적의 구성원이 함께 일하고 있고, 외국변호사의 자격국가도 다양합니다.

1) 이 보고서에서 변호사,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전문위원 등 로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분을 전문가라고 표시합니다.
2) 보고서에서는 지평의 모든 전문가와 직원을 합쳐 '구성원'이라고 표시합니다.

GLOBAL REACH

지평은 일찍부터 해외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여 한국의 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지평은 11개 국내 및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중앙아시아, 일본, 중동, 유럽,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 투자·진출, M&A, 금융, 부동산, 에너지, 인프라,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해외 사업 진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업무에도 오랫동안 정진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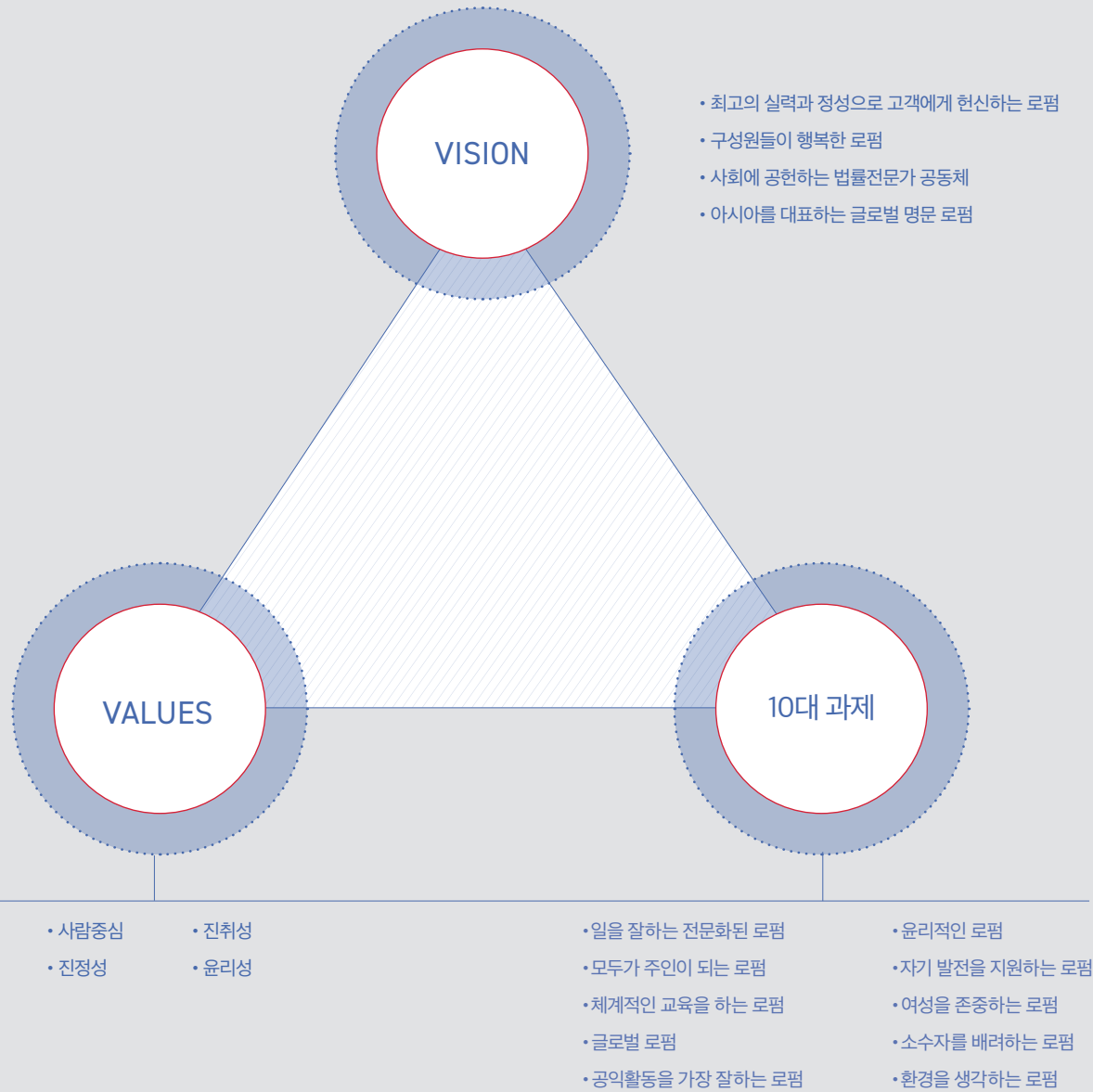


전체 구성원, 202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명)

전문가	한국변호사	구성원변호사	88	268
		소속변호사	112	
기타 전문가	외국변호사		49	
	한국회계사		2	
	외국회계사		2	
	고문·자문·전문위원		15	
직원				200
지평의 구성원 합계				468

02

지평의 비전과 가치



03

2020 경영 KEYWORD

행복한 스물, 담대한 도전

“스물이 된 지평을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며,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평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평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평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평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평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지평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평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창립기념일 라이브 방송’, ‘지평 20돌, 20주, 20인 릴레이 영상 인터뷰’를 통해 지평의 20년을 돌아보고 구성원과 소통하며 미래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평 20돌, 20주, 20인 릴레이 영상 인터뷰

- 배성진 / 신종걸 / 김유미: 2000년, 출발을 함께하다
- 조용환 변호사: 지평과 함께 걷다
- 이영규 변호사: 지평의 열정과 함께하다
- 서영호, 조원리, 김태오: 지평의 추억과 함께하다
- 정 원 변호사: 지평의 성장을 함께하다
- 나세원 / 김동희 / 김현정: 지평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다
- 구상수 회계사: 지평과 함께한 담대한 도전
- 최정규 변호사: 지키고 싶은 공동체, 지평
- 이태원 / 임태선 / 정신희: 지평에서의 나
- 배기원 / 장풍 / 서은희: 내가 선택한 가족, 지평
- 박진성 / 최진아 / 박희경: 지평 안에서 활력을 찾다
- 고세훈 / 허중 / 박보영: 내 삶의 중요한 일부, 지평
- 이종섭 / 허무택 / 박준영: 함께 나이들어갈 친구
- 정윤성 / 이혜은 / 구자영: 고마운 삶의 버팀목, 지평
- 김석동 고문: 미래 지향적인 로펌
- 고기승 / 고호정 / 박은비: 부대끼는 행복
- 김신 / 윤재훈 / 이지혜 / 김지원: 내일이 있는 곳
- 최희준 / 박상진 / 오유린: 더 좋은 나를 만드는 곳
- 장태준 / 이원섭 / 김승민 / 손재민 / 김복남 / 정미연: 나에게 지평이란

04

사회적가치 경영 추진 현황

사회적가치 경영 시스템 구축과 내재화를 위한 노력

지평의 사회적가치위원회(Social Value Committee)는 임성택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목표 설정과 중장기적 실천 과제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가치 경영을 전사적 과제로 내재화하고 이를 실현·추동하며, 인사, 교육, 업무, 조달, 지배구조, 환경 등 조직의 모든 영역과 법조사회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사회적가치의 관점을 반영시키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평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글로벌콤팩트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UN SDGs 17가지 목표를 사내에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가치위원회

임성택 대표변호사(사회적가치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대표변호사(윤리위원회 위원장), 양영태 대표변호사(경영위원장), 김상준 변호사(경영위원), 김영수 변호사(공익위원회 위원장), 서준희 변호사(HR위원회), 황인영 변호사(환경실천소모임), 권주연 차장(경영지원팀)

사회적 과제 실천

지평은 내부 공모를 통해 2020년 사회적 과제로 '지역 공동체 발전 프로젝트 - 우리함께'를 선정하고, 서대문경찰서와 함께 하는 피해자 여성·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 지원, 영천시장 상인회와 함께 지역상권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푸드마켓 기부 및 물품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기업, 공공기관, 시민사회의 사회적가치 실현 지원

지평은 2020년 9월 ESG센터를 설립하여 국내 최고의 ESG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ESG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제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장애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사회적경제, 국제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단체 등 NGO들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공익소송, 공익자문, 공익연구 사업 등의 활동을 통해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은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대상 법률자문·1 변호사 1 소셜벤처 매칭사업을 진행하였고, 온라인 내부신고 시스템 '소통 핫라인'을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인권문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와 관련한 공익인권 이슈에 관한 9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변호사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사단법인 두루는 제1회 새내기 공익변호사 실무교육 프로그램 '슬기로운 공변생활'을 개최하여 새내기 공익변호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의 공익변호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류사업에 참여하여 한국의 공익변호사 활동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평은 2020년 난민인권센터에 법률지원과 인건비 지원을 연장하였고, 지평이 참여하고 있는 로펌공익네트워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취약계층과 관련한 법정책 검토와 법률지원의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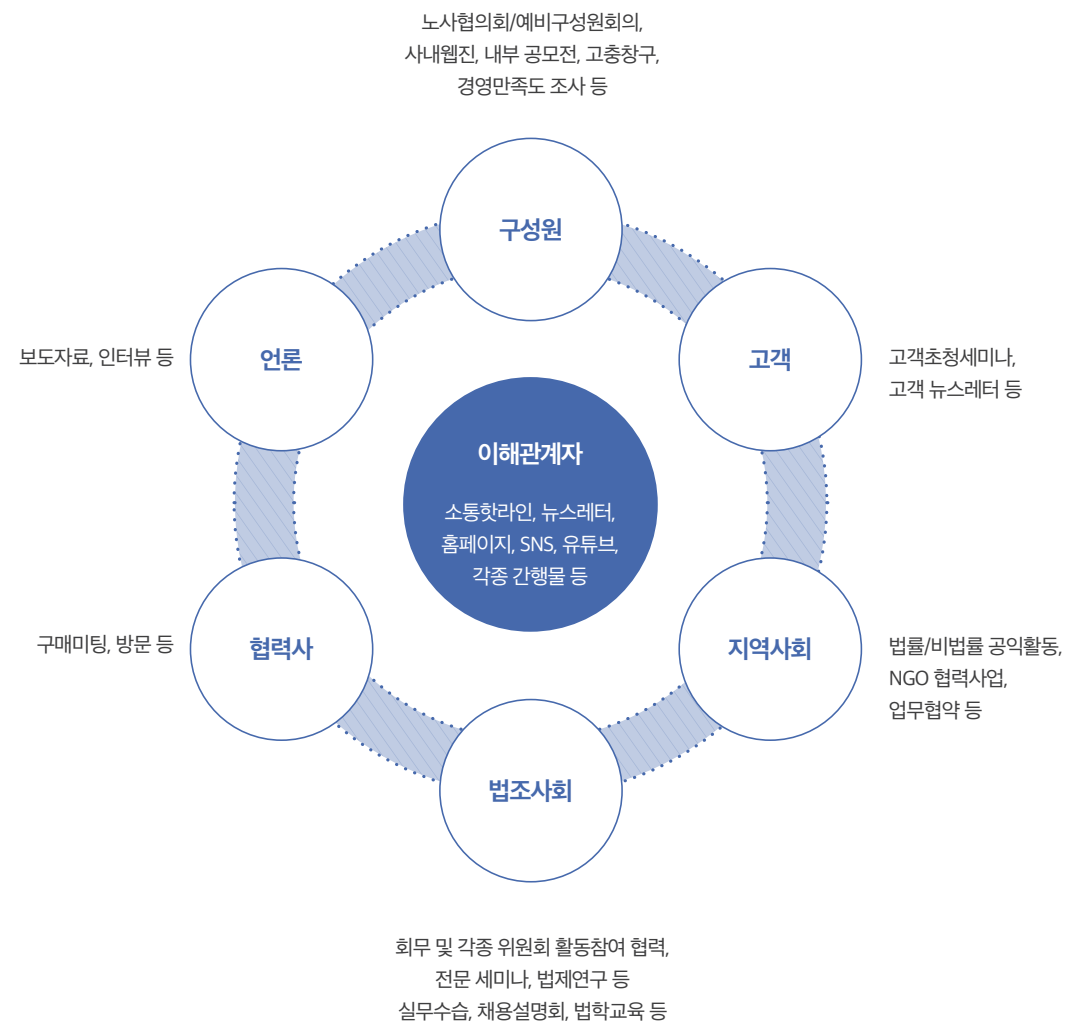
이해관계자

지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구성원, 고객, 지역사회, 법조사회, 협력사, 언론 및 공공기관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며, 이를 경영 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범위	관심 이슈
구성원	국내외 모든 사무소의 임직원 (한국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전문가, 직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인 지배구조 및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 법조윤리의 준수
고객	지평의 송무,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법인 또는 자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고객의 정보보호 및 비밀준수
지역사회	지평의 사무소가 있는 지역(서울, 순천, 부산, 상하이, 호치민시티, 하노이, 자카르타, 프놈펜, 비엔티안, 양곤, 모스크바)과 그 주민, 단체, N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의 정보보호 및 비밀준수 그린오피스 정책
법조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 법원, 검찰 등 실무가 법학 교수, 연구자 등 학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의 정보보호 및 비밀준수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법조윤리의 준수
협력사	예비 법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실무수습 참여자
언론	지평이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하거나, 증개 받는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조윤리의 준수
	지평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보도하거나 지평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신기술, 신산업 등 신규 업무영역의 개척

06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구성원

지평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비정기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그룹별 인터뷰의 형식으로 세대별 다양한 의견청취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변동사항은 구성원에게 즉각적으로 공유되며, 여러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웹진, 사내소식
- 파트너총회, 노사협의회, 예비구성원회의, 직원팀장회의, 문화소통위원회
- 경영평가, 인권영향평가, 차별·혐오표현 설문조사



고객

지평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소통 뿐만 아니라 뉴스레터, 세미나 또는 웨비나를 활용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 구성원이 외부에 기고한 연구논문, 판례평석, 칼럼 등을 모아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지평의 활동을 더 자세히 알리고, 지평 내부의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하며 업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 뉴스레터
- 유튜브, 고객의견 수렴(Contact us)
- 세미나, 웨비나 및 간행물



지역사회

지평은 법률교육과 상담 등 지역 법률 수요에 다양한 방식으로 부응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은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과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미혼 한부모 생활시설 애란원에서 법률교육과 법률 상담 진행
- 탈북청소년들과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2세 아동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레얼학교 후원
- 노숙인들의 자활지원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
- 빵을 구워 나누는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참여
- 지역공동체 발전 프로젝트 : 서대문경찰서 협약, 서대문구 협력과제 발굴, 지역상권 활성화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참여·지원

지평의 변호사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사회의 여러 이슈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로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4명의 전문가가 총 173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위원회 또는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2019년에 한국 로펌 중 최초로 유엔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평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다양한 학회와 전문가단체 및 NGO에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07

중요성 평가

지평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중요 토픽을 선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내부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요성 평가(Material Test)를 실시하였습니다.

토픽 목록의 작성

- GRI Standards 지표 검토
- 해외 로펌, 국내 유사업종의 보고서 벤치마킹
- 2019 지속가능성보고서 쟁점 반영
- 지평 경영위원회의 메시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 분석

중요성 평가

- 내부구성원(구성원변화사, 소속변화사, 고문·전문위원·PL, 직원) 중요도 설문조사 (기간: 2020. 5. 10. ~ 12.)
- 이해관계자(고객, 지역사회, 법조사회, 협력사, 언론) 관심사 설문조사 (기간: 2020. 5. 10. ~ 12.)
- 미디어(2020년도 보도 602건) 분석
- 지평 경영위원회 메시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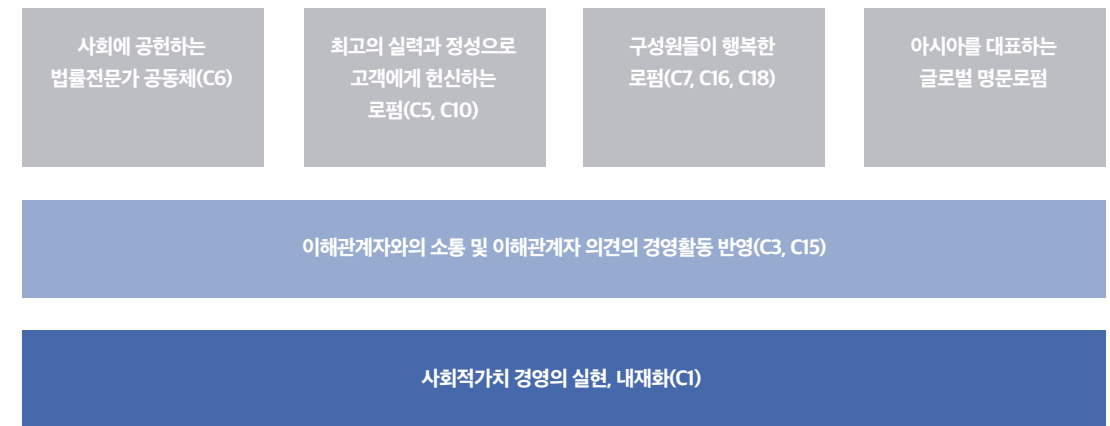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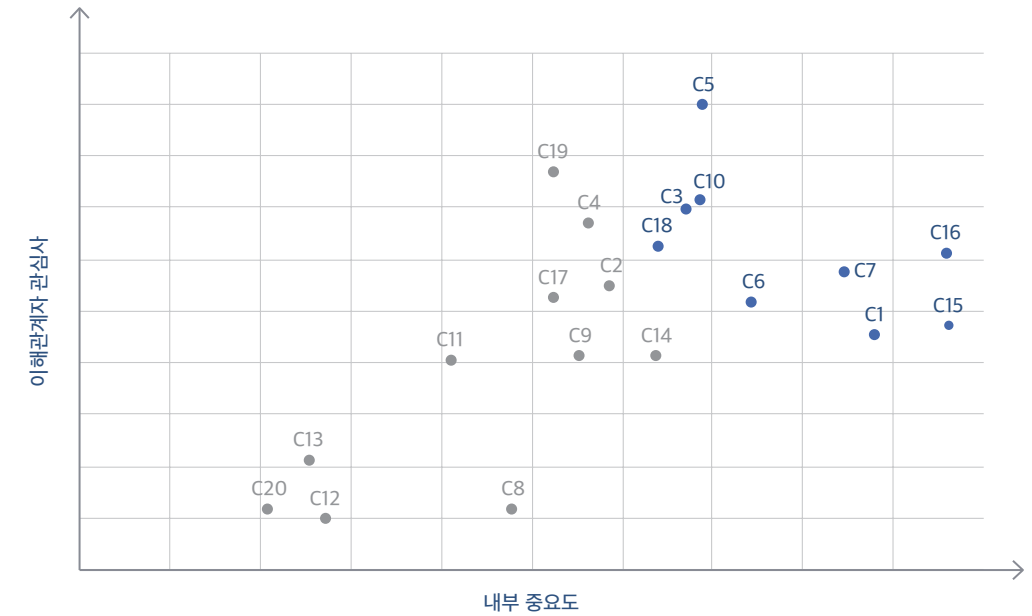
중요 토픽 선정

- 내부구성원 설문조사 결과에 경영위원회 메시지 분석 결과를 가중 반영하여 내부 중요도 도출
- 이해관계자별 설문조사 결과를 가중하고 미디어 분석 결과를 가중하여 이해관계자 관심사 도출
- 내부 중요도와 이해관계자 관심사가 높은 토픽 9개 선정

지평은 20개 토픽에 대해 중요성 평가를 통해 2020년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토픽 9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중요 토픽에 대한 내부 검토 후 2020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9개의 중요 토픽을 지평의 비전을 주제로 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중요 토픽

C1	사회적가치 경영의 실현, 내재화	C11	소셜벤처 지원, 프로보노 활동 등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C2	합리적인 지배구조 및 민주적인 의사결정	C12	그린오피스 정책(용수 절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 종이 등 폐기물 감소)
C3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이해관계자 의견의 경영활동 반영	C13	환경 관련 NGO, 소셜벤처 법률지원
C4	법조윤리의 준수	C14	구성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 다양성과 기회균등
C5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C15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C6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C16	구성원의 안전 및 보건 강화(코로나19 대응 등)
C7	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	C17	일과 가정의 양립(적정 근로시간, 출산·육아 지원)
C8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 지지	C18	구성원 역량 개발 및 교육
C9	경제적 성과 창출(수익성 제고)	C19	고객의 정보보호 및 비밀준수
C10	ESG, 신기술, 신산업 등 신규 업무영역의 개척	C20	법치주의 및 법조사회 기여(장학금, 인턴십, 세미나, 협회활동)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2부. 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

로펌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특히 '사람중심'을 핵심적인 가치로 여기는 지평에게, 진정성과 윤리성을 가진 진취적인 인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지평은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공정한 채용절차, 구성원의 다양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환경, 성장을 위한 교육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1

지평의 구성원

지평의 소속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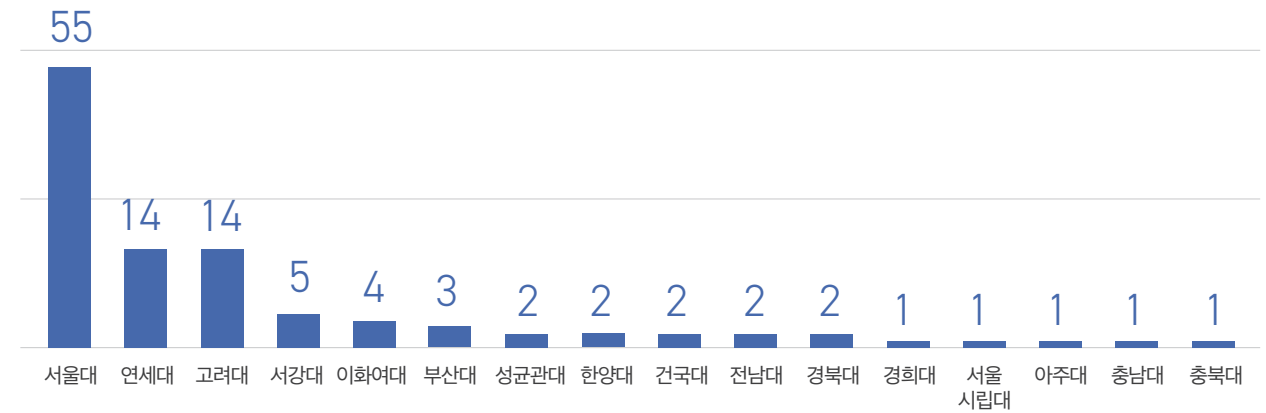
지평의 변호사 채용정책은 한마디로 '동업자 찾기'입니다. 지평은 소속변호사가 근로자임과 동시에 미래의 동업자가 될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지평 HR위원회는 최고의 동업자에 걸맞은 최선의 채용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실무수습 선발 및 신입 변호사 선발 과정에서 인적 구성의 다양성 기준을 고려 요소로 포함시켜 2020년에는 보다 다양한 출신학교에서 실무수습 및 신입변호사를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성별, 혼인 여부,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장애 유무에 관한 차별 없이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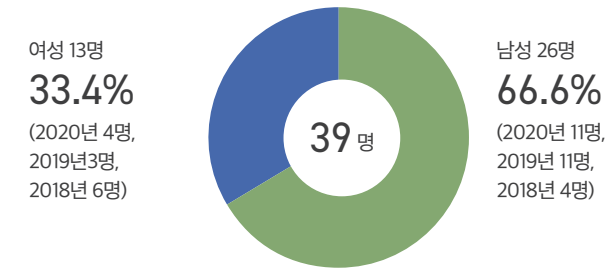
지평은 지원자가 제출하는 이력서에 선발 과정에서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과 같은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을 비롯한 채용과정에서 성별·연령·외모·병력 등 비합리적 이유에 의한 차별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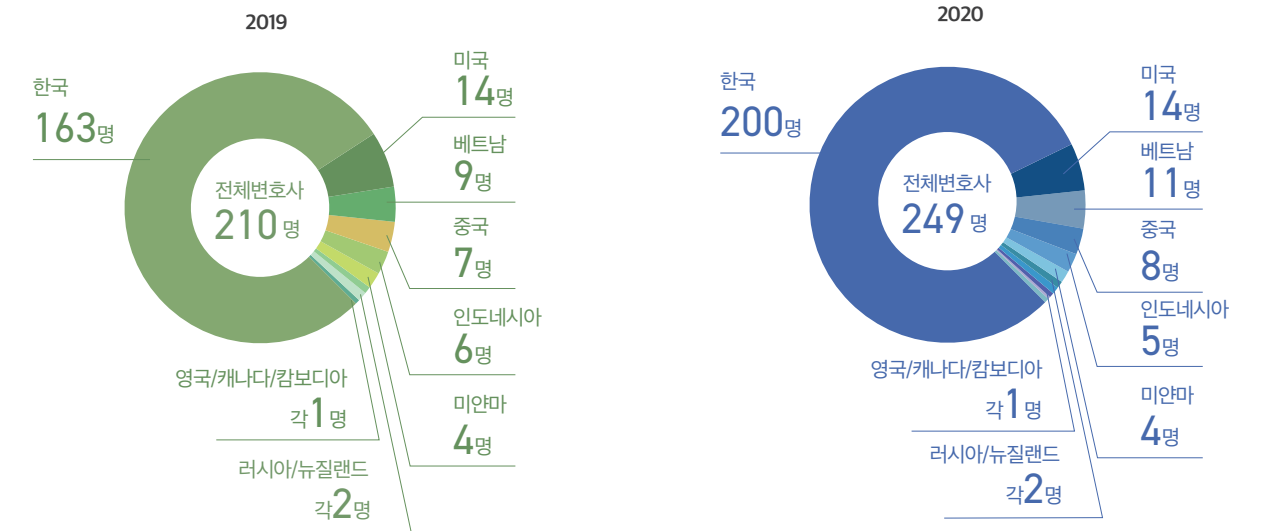
(단위 : 명)



2018-2020년도 신입변호사 성별 비율



변호사 자격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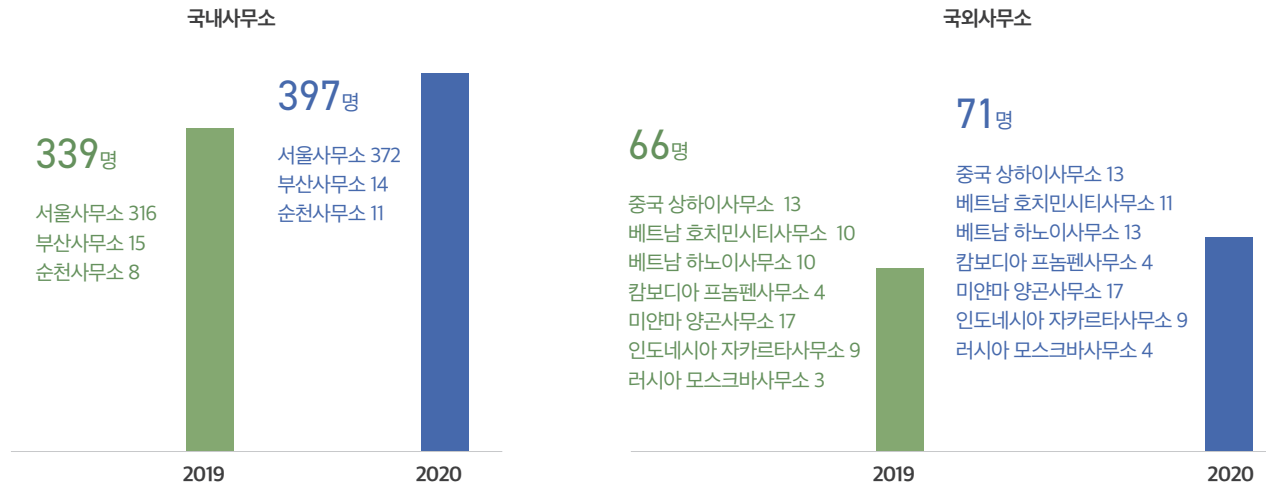


학부별(사법시험) 변호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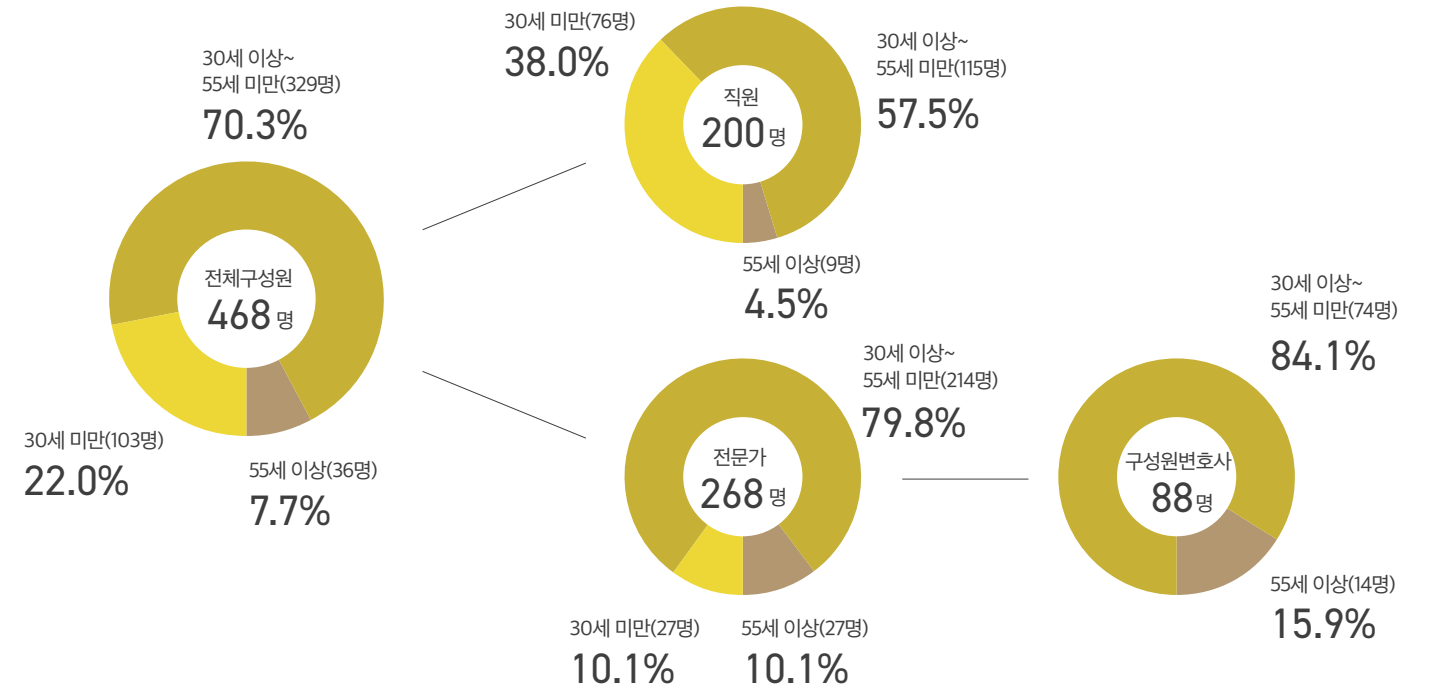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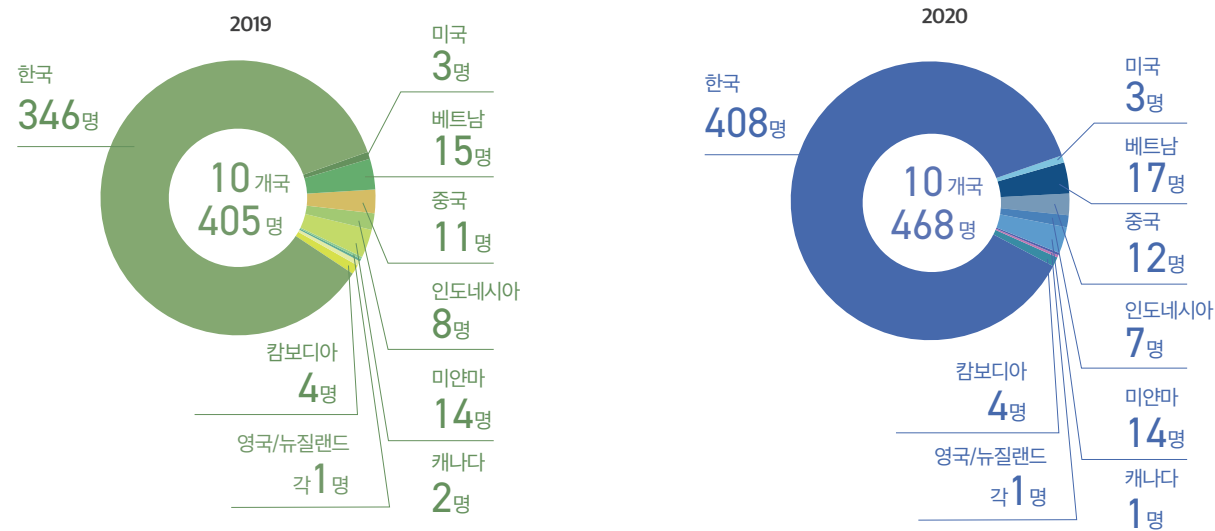
사무소별 구성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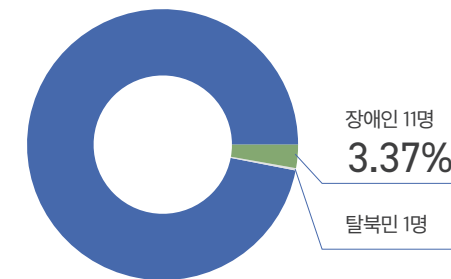
구성원의 연령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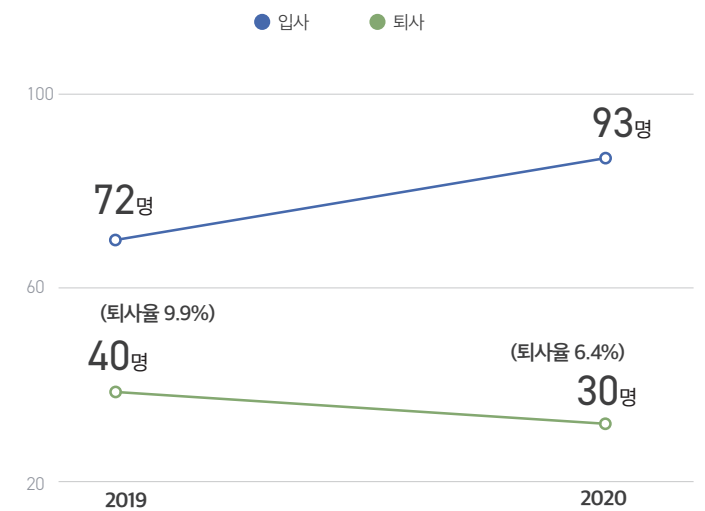
구성원의 국적



소수자 구성원



2019-2020년 신규채용 성과 및 이직 현황



02

구성원의 역량강화(교육과 훈련)

지평은 로펌 최초로 교육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성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평은 '지평아카데미'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평 안팎의 다양한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신입변호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총 15회에 걸쳐 법률실무 전반을 학습할 수 있는 '금요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변호사들이 작성한 의견서 혹은 소송서면을 교육연구위원들이 집중적으로 강평하는 '서면 강평회',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함께 연구하는 '판례 세미나', 세부 법률분야 별 '전문분야 세미나, 글쓰기, 상담법, 프리젠테이션 기법, 협상론 등을 배우는 '실무 세미나'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지평아카데미

지평은 매월 점심시간을 활용한 지평아카데미를 통해 지평 내 혹은 외부의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단체 행사를 제한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모든 강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용방식으로 진행하여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되, 준비한 강연에 많은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일자	강연주제	온/오프라인
5월	사회와 함께 크는 자본, 임팩트 투자	온/오프라인
6월	미래학교 : 투자자와 엄마 사이	온/오프라인
10월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신속진단을 위한 집단검사	온/오프라인

2020년도 신입변호사 교육

지평은 교육연구위원회 주관으로 신입변호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구성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입변호사 교육은 입사 후 2개월 간은 변호사 윤리, 비즈니스 에티켓, 소송, 자문의견 등 법률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후에는 매주 금요세미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관한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입변호사 교육 프로그램

좋은 변호사란
학생에서 변호사로 -비즈니스 에티켓, -법정 예절, -소송절차 개관
지평의 사회적가치경영 설명회
민사소송 과제 및 소장 강평
민사의견서 과제 및 강평
계약서 작성 과제 및 강평
민사답변서 과제 및 강평
보전처분 강의/보전처분신청서 과제 및 강평
상법 의견서 과제 및 강평
영문의견서 번역 과제 및 강평
행정소송 개관 강의/헌법소송 신청서 과제 및 강평
헌법/행정 의견서 과제 및 강평
실사보고서 과제 및 강평
행정 소장 과제 및 강평
자문 의견서 과제 및 강평
민사 항소이유서 과제 및 강평
딜 보조업무 과제 및 강평
형사 변론요지서 과제 및 강평
민사 상고이유서 과제 및 강평
이사회, 주총 과제 및 강평
계약서 코멘트 강평

금요세미나

날짜	내용	강사	온/오프라인
1주차	민사집행	권창영	온라인
2주차	상법의 주요 쟁점	신민	온라인
3주차	대출계약과 담보	이승현	온라인
4주차	금융관계법, 자본시장법 개관	심희정	온라인
5주차	공정거래법 개관	이병주	온라인
6주차	도산법 개관	권순철	온라인
7주차	근로기준법 개관	이광선	온라인
8주차	수사절차, 형사재판절차	최세훈, 문수생	온라인
9주차	지식재산권법 개관	최승수	온라인
10주차	건설부동산 업무 개관	정원	온라인
11주차	외국환거래법 개관	유정한	온라인
12주차	의견서 작성 및 리서치 방법, 변호사의 자세	김지홍	온/오프라인
13주차	조세법 개관	구상수	온라인
14주차	기업회계 개관	구상수	온라인
15주차	행정소송 쟁점과 사례, 외국인 투자제도 개관	박성철, 고세훈	온/오프라인

1인당 교육훈련시간 통계(서울사무소)

(단위 : 시간)

	전문가		직원		합계	
	총	1인당	총	1인당	총	1인당
2019	2,397.2	13.6	642.0	4.6	3,039.2	9.6
2020	3,467.8	16.5	735.5	4.5	4,203.3	11.3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민창욱 변호사

저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미국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사 과정(Master of Public Affairs, MPA)을 마쳤습니다. MPA는 경력 10년 내외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3학기(여름, 가을, 봄) 동안 정책분석, 경제학 및 통계학, 리더십 등을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51명의 동기들 중 미국인 이외에 외국 국적자는 35%였고, 주로 각국의 행정부 또는 입법부, NGO, 국제기구 등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짧은 영어 실력으로 수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 자유로우면서도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걸 배웠습니다. 교수님 중에는 후드티에 반바지를 입고 학생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는 분도 있었고, 대부분 학생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손을 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남들 앞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저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교환하는 문화가 지금의 미국을 만든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졸업 논문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 이중구조와 노동소득 격차"란 글을 썼습니다. 유학길에 오르기 전부터 노동시장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된 업무에도 조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법령과 정부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졸업 논문을 준비하면서 OECD나 통계청의 데이터를 들여다 볼 수 있었고, 정부의 정책 대안이 노동시장에 미칠 경제적 영향이 어떠한지 고민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상품시장의 불공정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작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알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원가를 제대로 하나 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인의 역량과 시간은 부족한데, 공공의 문제는 한 명이 얼마의 시간을 투입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듯 합니다. 여러 명이, 오랜 시간 동안, 한 마음으로 노력해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평이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공동체로 오래 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입변호사 교육훈련시간

내용	1인당 교육시간	전체 교육시간
신입변호사 교육	162 시간	1,792.00 시간
금요세미나	30 시간	380.71 시간
총 시간	192 시간	2,172.71 시간

*중도입사자는 월할로 계산하여 반영함

정기적인 인사평가

지평은 소속변호사를 대상으로 1년에 2회,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소속변호사(한국변호사) 중 장기연수, 휴가 등 평가 예외 대상을 제외한 94.7%가 평가를 받았고, 하반기에는 91.8%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경우 장기 육아휴직자와 입사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을 제외한 93.7%의 직원에 대해 업무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구분		2019년	2020년
소속변호사	상반기	90.9%	94.7%
	하반기	91.2%	91.8%
직원	연간	95.6%	93.7%

변호사 장기연수

지평은 변호사에 대한 장기연수를 중요한 교육훈련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해외 로스쿨 LLM 과정 이외에도 해외사무소 근무, 외국로펌 근무, 국내 기업 및 정부 기관 근무 등 다양한 장기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사 후 4년 반(법무관 출신) 또는 5년 반(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이상 근무한 한국변호사가 연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4명의 변호사가 연수를 시작하였고, 2020년에는 6명의 변호사가 연수를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수복귀	연수개시	연수처 명단	
4	6	업무형 연수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한국환경공단
		해외 연수	네덜란드 Leiden Univ.
			일본 Keio Univ. Law School
			영국 King's College London, LL.M.
전문가 과정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03

인권과 안전

소수자 차별금지 정책

지평은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탈북민 등 사회적 소수자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평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명함을 전사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은 비장애인과의 장애인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내용과 직급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든 직원이 적재적소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지평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준수합니다. 2020년 지평의 장애인 구성원 비율은 3.37%로 의무고용률인 3.1%를 초과하였고, 2020년 10월에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평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기 전부터 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지속적인 장애인고용정책 추진 및 공익위원회 내 장애인권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옹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고충상담창구

지평은 성평등한 직장환경을 만들기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9년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강화를 위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지평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수립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평은 이러한 활동과 제도를 통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한 동료로 인정받는 건강한 직장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혐오표현 조사 및 개선을 위한 노력

2020년 9월 공익의 날을 맞이하여 실시한 지평의 차별·혐오표현에 대한 설문조사에 지평 구성원 57명이 응답하였습니다. 지평 구성원들은 의도 혹은 상대방의 용인과 상관없이 차별·혐오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였고, 차별·혐오표현의 가능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평에서 작성한 문서에는 차별·혐오표현이 없다고 답한 구성원이 91.2%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차별적인 표현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사내웹진을 통해 전파했습니다. 차별과 혐오표현을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게 지지 받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지평과 구성원들이 해야 할 노력을 정리하여 사내에 제안하였습니다.

조사사례 및 개선의견

지평 안에서 구성원들이 보고 겪은 차별·혐오표현입니다.(성별)

여자는 백치미가 있어야지, OOO처럼 너무 세면 안돼. 배우자가 힘들어!

아무래도 경년기인가봐, 여성화가 진행되지 감수성이 예민해졌어.

아이구, 연약한 여자에게 이런 걸 시키면 쓰나! 내가 알아서 할게.

에 엄마에 나이도 많은데 일을 잘 하겠어?

성추행 피해를 어떻게 더 강조해볼까... "여자의 몸으로 씻을 수 있는 상처를 입고"면 되겠지?

우리 팀은 여자번호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야, 이번엔 남자번호사로 뽑지.

오이구, 아중마관긴!

아재개그 좀 그만해.

지평 안에서 구성원들이 보고 겪은 차별·혐오표현입니다.(성소수자·종교·장애)

성소수자는 인간도 아니고 생각해

동성애자들 극혐이야

(소송서면에서) "월을말이 재도", "깜깜이 인사"

무슬림은 무늬야야, 정신병자만도 못하다구!

지평 안에서 구성원들이 보고 겪은 차별·혐오표현입니다.(학벌·경력·외모)

난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후배로 생각 안 해

학력/학벌 무시하는 발언

경력직을 차별하는 발언

"OO씨가 우리 회사 미모 1등이지", "잘 생겼다, 은남이야-" 등 외모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평가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해요**
 - 잘못된 관습표현을 알아두고
 -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 자신을 돌아봐요
 - 방심은 금물!

"나 정도면 의식있는 사람이야" 하는 생각에서 실수가 비롯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내 마음을 다시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 지평의 일원으로 품위있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요**
 - 편한 사이라서 실수가 없었는지
 - 술이나 기분에 취했던 적은 없었는지

대외적인 표현(서면)에는 더욱 주의해요
- 문제가 발생하면 지적해요!**
 - 웃자고 한 얘기지(X)
 -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지(X)
 - 우리가 하투이를 사이도 아니고(X)

"하하하- 요즘 이런 얘기하면 잡혀가지?"를 늘 덧붙이면서 잘못된 표현을 일삼는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는 반복돼요. 진짜 지적을 해주세요.
- 제도적으로 지원해요!**
 - 소수자는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워요
 - 민원창구를 만들고
 - 독립적으로 운영해주세요

"소수자에 대한 편견! 심사리 '차별'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쓰는 법률서면에서의 차별표현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A사건의 항소이유서 참고 / '깜깜이' →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

B사건의 계약서 참고 / '처녀지' → '처녀'는 여성의 손결을 뜻하는 말로, 남성 중심적 언어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용례

C사건의 준비서면 참고 / '미량인' → '가부장적 인식이 담겨 있는 차별적 표현 [미량인(未成人)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다.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해 살아남은 죄인이라는 의미다]

2020년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

2020년에는 5건의 고충사항이 익명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고충은 모두 원칙대로 처리하였으며, 근로조건 관련 항목은 직장 내 근로 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이었습니다. 지평은 구성원들의 고충사항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의 편의, 익명성 보장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온라인 상담 및 신고 시스템인 '소통핫라인(sotonghotline.com)' 제도를 2021년 마련하였습니다.

소통 핫 라인



구분	건수	처리경과
회사생활 편의사항 개선 관련	1	팀장회의 및 해당부서에 전달하여 처리완료
직장 내 안전보건 관련	-	
직장 내 근로조건 관련	3	고충처리위 소속 담당변호사 전달 후 관련팀에 공지하여 처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1	관련자 조사
성희롱/성폭력 관련	-	
총계	5	

2020년 업무상 상병 및 처리 사례

지평은 산업안전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의무는 없으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안전·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평에서 업무상 상병과 공상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평은 직원이 스스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예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이 만 40세 또는 50세가 되는 해에는 종합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성원의 대다수인 사무직 또는 전문직 구성원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의 코로나19 대응

지평은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손 소독제, 1회용 방역장갑,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을 사내에 배치하고,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2회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지침에 맞추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비상업무매뉴얼을 정비하였고, '거리두기' 단계별로 사무실 근무 인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또는 같은 건물 근무하는 사람 중 감염자가 확인되면 사내 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발생 사실과 동선을 전파하고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최초 감염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만 공개되면 좋겠다는 사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후로는 감염자의 동선 외에 증상정보, 동행자가 없는 동선 등 필요 이상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인터뷰

행정지원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에 지평이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지평에서는 구성원과 고객의 감염병 예방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상황 대비를 위한 단계적 비상업무 매뉴얼을 강화하여 고객 서비스 중심의 업무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평에서 펼친 활동 또는 노력을 소개해주세요.

지평에서는 감염병 예방 지침을 수시로 안내 공지하고, 모든 고객 미팅을 영상과 컨퍼런스콜로 권장하는 사내 방침과 더불어 사내에 손세정제, 체온계, 마스크를 비치하고, 고객 동선에는 발열 체크센서와 QR코드를 비치하여 방문객 목록을 일정기간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사내 근무 시 마스크 착용, 수시로 환기를 하고, 최근 백신유급휴가제를 도입하여 적극 활용 및 1년 이상 근무공간 내 주기적인 방역과 사적 모임 지양, 모든 전체 행사를 미루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구입 비치하고, 구성원들과 방문 고객분들 중 발열 의심 또는 필요 시 자유로운 이용으로 감염병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체방역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관련해 앞으로 좀 더 신경써서 개선하고 싶은 대응 또는 활동이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보다 더한 감염병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건물 관리주체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위생적인 청소 및 건물 관리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구성원들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간의 혁신과 근로안전점검 시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지평은 안전하다는 인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04

노사간 협력

인권영향평가 실시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UHRC)에서 승인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s')에 따라 모든 기업들은 인권 존중책임을 부담합니다. UNGPs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위하여 취해야 할 핵심적인 조치 중 하나로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지평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사단법인 두루에 의뢰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 기간, 범위 및 방법

• **평가 기간** : 2020년 9월 ~ 2021년 1월

• **평가 범위**

- 지평의 조직운영과 관련한 사항(이하 '구성원 관련 인권영향평가')을 중심으로 지평의 법률서비스 등 사업과 관련한 사항(이하 '고객 관련 인권영향평가')을 실시함.

- 구성원 관련 인권영향평가는 서울사무소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지사 및 해외사무소는 향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고객 관련 인권영향평가는 일반 기업과 다른 로펌으로서 특수성 및 변호사의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고객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신의의무와 국내 로펌 첫 인권영향평가임을 고려하여, 관련 내부 규정 및 방침을 점검하고 향후 지평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권적 관점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및 방법론을 제안함.

• **평가 방법**

- **구성원 관련 인권영향평가**

전문가(6개 그룹) 및 직원(7개 그룹)을 대상으로 인권경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13회의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거쳐 인권침해 사례·위험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경영위원 인터뷰/각 행정부서별 현황 및 실태 관련 질의응답

각종 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 및 실태 검토

- **고객 관련 인권영향평가**

로펌 사업 관계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국내외 문헌 검토

경영위원 및 윤리위원 인터뷰

사업 관계에 관한 지평 내규 및 방침 검토

구성원 관련 인권영향평가

- 지평 구성원 관련 인권영향평가는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인권목록을 기준으로 FGI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인권침해의 발생가능성과 중대성 관점에서 ▲ 평등권·차별, ▲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 ▲ 노동에 관한 권리, ▲ 가정·모성에 대한 보호, ▲ 여성의 권리, ▲ 프라이버시권과 초상권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함.
- 지평은 일·가정 양립, 소수자 차별금지, 구성원의 복지와 안전 등 구성원과 관련한 주요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익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지평은 소속변호사들의 과중한 업무 방지를 위해 「예비구성원의 과도한 업무방지 및 일과 삶 균형발전 지침」을 제정하고, ▲ 월·분기별 타임 등 관리, ▲ 타임시트 가이드라인 제정, 집중배당 및 관리, 과배당신고(그린카드), 배당 일시 중지 등 제도 시행, ▲ 업무량에 연동한 예비구성원 추가 채용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 위 정책이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성·정량 데이터를 기초로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함.
- 쾌적한 근무환경(환기와 채광) 등 일부 영역에서 권리보장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해당 권리의 보장 및 향상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권고함.

고객 관련 인권영향평가

- 지평은 법률서비스 수임 단계의 인권리스크 대해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윤리현장을 마련하여 고객에 대한 의무와 한계를 윤리 준수의 관점에서 규정하고 경영위원회의 감독과 구성원변호사의 책임하에 체크하고 있음.
- 지평 윤리위원회는 변호사 윤리에 위반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구성원에 대한 윤리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음.
- 사건 수임 절차에 인권 고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고객 관계에서 로펌의 인권존중책임 및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해 구성원에 대하여 기업과 인권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

지평은 구성원의 책임있는 경영참여로 수평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근로자와 로펌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로펌을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와 소속변호사 전원으로 구성된 예비구성원회의를 통해 근로조건, 안전·보건 그 밖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0년 노사협의회와 예비구성원회의의 핵심주제는 2019년에 이어 업무시간 조정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추구입니다. 이외에도 팀별 워크숍, 사내웹진, 지평아카데미와 동호회 활동을 통해 구성원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혁신제안제도'를 통하여 구성원들로부터 업무혁신방안을 제안받고, 이를 실현하여 성과를 내는 등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로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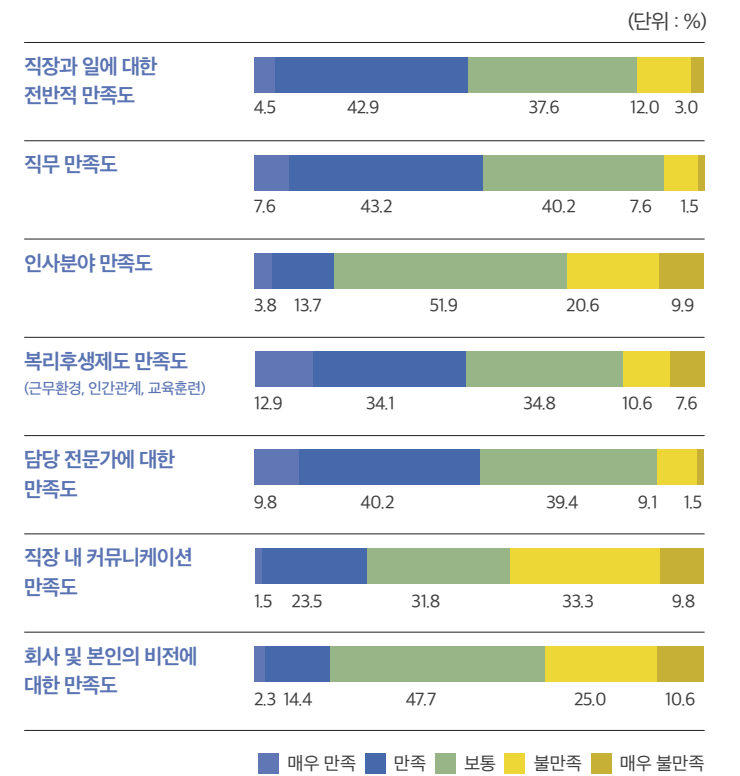
노사협의회(직원)

노사협의회는 구성원은 사용자위원 3인, 근로자위원 3인으로 구성됩니다. 지평은 2020년 하반기 노사협의회를 통한 소통 및 직원들의 경영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주관하여 근로자 대의원 5명을 추가로 선출하고, 선출된 대의원들도 노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간담회를 포함하여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직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노사협의회 논의와 경영에 반영하였습니다.

직원만족도 설문조사

기간 : 2020년 10월 23일 ~ 27일 5일간
대상 및 방법 : 서울사무소 재직 직원 대상, 구글폼을 이용한 익명 조사
참여도 : 138/145명

객관식 설문조사 항목 및 결과



지평은 노사협의회에서 시행한 직원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사용자위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평가된 인사분야 개선을 위하여 인사제도 정비를 단행하였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통하라인 사이트를 개설하여 익명성을 더욱 높이고, 의견 전달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습니다.

예비구성원회의(전문가)

지평은 소속번호사를 근로자임과 동시에 미래의 동업자가 될 파트너라는 의미에서 예비구성원이라 합니다. 지평의 예비구성원들은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경영위원회와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영 및 예비구성원의 근로조건과 업무 향상에 관한 의견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앞두고 예비구성원 협의회와 일과 삶의 균형, 로펌 업무방식과 업무시간의 변화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재량근로제에 합의하였습니다. 나아가 지평은 주 52시간 근무제 및 재량근로제의 도입 취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2020. 1. 31. '예비구성원의 과도한 업무방지 및 일과 삶 균형발전 지침'(약칭: 일과 삶 균형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일과 삶 균형지침은 예비구성원의 월 업무시간을 170시간 미만이 되도록 관리하고, 과도한 업무량이 지속되는 경우 예비구성원을 추가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구성원들 간 업무배당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배당제, 유연근무·재택근무제 및 임신한 예비구성원의 업무량 감축조치, 겨울휴가 정례화 등 예비구성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평은 '일과 삶 균형지침'의 이행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비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 균형지침의 주요 내용

목표	조치
과중한 업무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번호사의 업무시간을 월 170시간 미만이 되도록 관리하고, 예비구성원 전체의 평균 업무시간이 월 150시간 이하가 되도록 업무량을 실질적으로 감축 과도한 업무량이 지속되는 경우 소속번호사 추가 채용
업무의 균등한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번호사들에게 사건이 골고루 배당될 수 있도록 팀장 또는 배당 담당 구성원번호사를 통해 일원적으로 사건 배당
일과 삶 균형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 기타 사정으로 유연근무·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경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 임신한 소속번호사의 업무량을 감축하고, 법에 따른 최대한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 겨울휴가, 집중휴가 등을 통해 소속번호사의 휴가 사용을 촉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의 조성

지평은 노사협의회와 예비구성원회의의 주요 관심사인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 채용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평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인사평가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2017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 시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사용기간 60일내에 10일의 유급휴가(불연속)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평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퇴사한 직원들에게 채용 수요가 있을 때 우선 연락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 향후에도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을 확대하고 범위를 다각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분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실태	전문가	6건(육아휴직 사용 1건, 출산휴가/육아휴직 동시사용 5건)				
	직원	6건(출산휴가/육아휴직 동시사용 6건)				
최근 5년간 육아휴직 기간(출산휴가 포함)	전문가	평균 5.5개월				
	직원	평균 14.5개월				
2020년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실태		배우자 출산휴가 7건 육아휴직 1건 (평균 11개월)				

구분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구성원 수	남	0	1	1	2	2
	여	15	17	10	6	8

직전 보고서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자를 모두 포함하였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인원만 산출하였고 이에 따라 인원 변동이 생겼습니다.

가정 및 육아 지원

지평은 직원이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 육아휴직,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등학교 지원을 위한 자유로운 출퇴근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고등학교 입학 시 대표번호사의 응원격려 편지와 축하꽃바구니 전달, 대학교 입학 시 학자금을 지원하여 구성원의 자녀가 회사와 함께 성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가 생활 지원

지평은 직급별로 복지비를 지급하여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월 1회 금요일 퇴근시간을 12시 30분으로 앞당긴 조기퇴근제, 연 6회 2시간 외출제 및 생일을 맞이한 임직원의 생일축하 조기퇴근제 등을 실시하여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지평은 2017년 3월부터 장기근속한 구성원에게 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장기근속자 안식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번호사 등 전문가의 경우 3년을 근무한 소속번호사에게(2주일), 직원의 경우 10년차(2주일), 20년차(1주일)에 해당하는 구성원에게 안식휴가를 부여하여 구성원들의 휴식과 충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속번호사와 직원들은 팀별 업무 일정을 조정하여 안식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문가	14명	8명	9명	8명
직원	-	11명	10명	8명

경영평가 실시

지평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2019-2020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총 175명이 응답했습니다.

구분	참여	합계
전문가	구성원번호사	50명
	소속번호사	59명
직원	팀장	10명
	팀원	56명

경영평가 결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점수가 높았고, 소통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구성원들이 높게 평가한 순서로 보면 사회적 책임(3.95) - 혁신(3.73) - 리더십(3.7) - 행정(3.53) - 재무(3.5) - 소통(3.43)의 순입니다.

구분	총점	평균
[리더십] 전략을 잘 수립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였는지?	647명	3.7
[소통] 구성원번호사, 전문가, 직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였는지?	600명	3.43
[혁신] 조직의 혁신과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653명	3.73
[행정] 각종 행정체계 및 직원조직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는지?	618명	3.53
[재무] 매출 및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고, 효과적 비용 관리 등을 하였는지?	613명	3.5
[사회적책임] 지배구조, 법조윤리 준수, 일가정 양립, 채용과 조직 운영, 환경 기여, 공익활동 기타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692명	3.95
[총평] 전체적으로 경영을 잘 수행하였는지?	661명	3.78

그 외 주관식 평가에서 경영위원회가 잘한 점으로 코로나 대응, 지속적 성장의 발판 마련, 일과 삶 균형, 신규 영역 확장, 넥서스 부동산금융팀 영입, 지평 인권영향평가 시도, 캐주얼 데이 및 금요일 조기퇴근, ESG센터 등 신규 분야 개척 등이 꼽혔으며, 소통, 고객에 대한 로열티 향상, 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지 증진 등 부문에서 개선과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3부.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지평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가치 추구를 중요 과제로 삼아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적가치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전문성을 쌓고 특화된 업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01

지평의 업무영역

지평은 소송·중재, M&A, 기업,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증권, PE, 건설·부동산, 공정거래, 노동, 도산·구조조정, 지식재산권, 형사, 조세, 헌법, 행정, 보험, 해상, 국제중재, 상속·가사 분야에 걸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금융	분쟁해결	건설·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 기업법무일반 기업지배구조 도산·회생·기업구조조정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공공정책·입법지원 위기관리 ESG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금융·실물투자 SOC 프로젝트 파이낸스 구조화금융/파생금융 인수금융 선박·항공기금융 IPO·자본시장 사모펀드·PE 금융규제·금융회사 자문 금융회사M&A·해외진출 금융·증권·보험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증권·보험분쟁 건설·부동산 분쟁 공정거래 분쟁 인사·노무·노동 분쟁 IP 분쟁 도산 분쟁 경영권분쟁·투자자소송 제조물책임·소비자분쟁 상사·민사분쟁 해상·항공 국제중재 해외소송 헌법·행정쟁송 의료소송 가사소송 조세쟁송 언론소송 	

공정거래	인사·노무	형사	지식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기업집단 및 내부거래 규제 기업결합 하도급 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 표시광고·약관 공정거래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노무·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산업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형사 일반형사 금융형사 증권형사 건설·부동산 형사 노동형사 조서형사 공정거래형사 선거형사 종교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실용신안·직무발명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영업비밀·산업기술·기업정보보호 개인정보·데이터 IP Management 및 전략 컨설팅 지식재산권 남용·기술 탈취 분쟁 불공정무역행위·통관

상속·가사·기업승계	조세·조세회계센터	보험	ESG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 등 분쟁 이혼 및 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변경 상속세 및 증여세, 기업승계 기타 가사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쟁송 조세자문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 대응 상속세 및 증여세, 기업승계 조세형사 회계규제 관세 및 국제통상 조세회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 분쟁 보험 법령 특종 보험 해상·항공보험·재보험 보험회사 검사 보험회사 지점 설립/운영 보험회사 인수 합작 보험회사 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인권경영, CSR/지속가능성/사회적가치 준법·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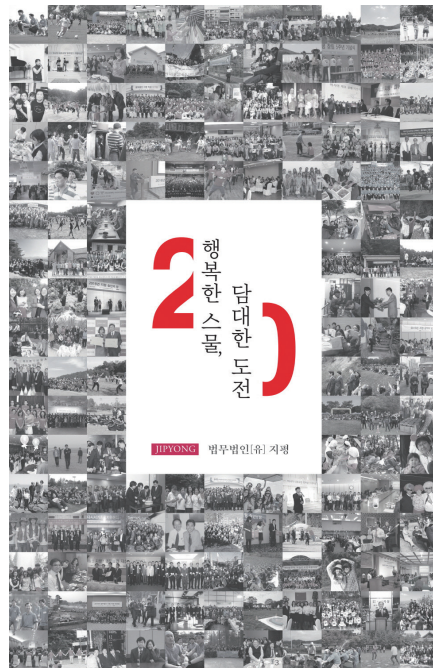
산업별	국가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제약·의료기기·헬스케어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에너지·자원·인프라 건설·부동산 전자금융·핀테크 신기술·신산업 엔터테인먼트·스포츠·레저 게임·e스포츠 공공계약·절충교역 R&D 교육·학교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국 러시아·중앙아시아 캄보디아·라오스·태국 싱가포르·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본 인도·중동·아프리카 영국·독일·유럽 미국·캐나다 호주·뉴질랜드 중남미 북한·북한투자지원센터

02

사업성과

지평의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도전을 통해 도약을 이룬 한 해였습니다. 2020년 지평은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가 50여 명 증원되어 규모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넥서스 부동산팀을 영입하고, 조세, 공정거래, 형사 등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다양하게 영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연구관 제도, 중요사건 집중관리 제도 등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 20주년을 맞아 지평의 가치와 철학을 다지는 한 해로 삼았고, 특히 사회적가치 경영을 강화하고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03

신규업무개척

지평은 새로운 시장 환경에 발맞춰 2020년에 아래와 같이 팀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조직을 대폭 강화하여 신규업무를 개척하였습니다.



조세회계센터

지평은 2020년 조세팀을 대대적으로 보강하고 회계 기타 관련 업무와의 결합을 통하여 조세회계 분야의 토탈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조세회계센터를 발족하였습니다. 지평 조세회계센터는 지평의 탁월한 실력과 전문성에 기반한 [조세팀] 및 [회계규제팀]을 중심으로, 상속·가사·기업승계팀, 형사팀, 공공정책·입법지원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법인 내 유관 전문서비스팀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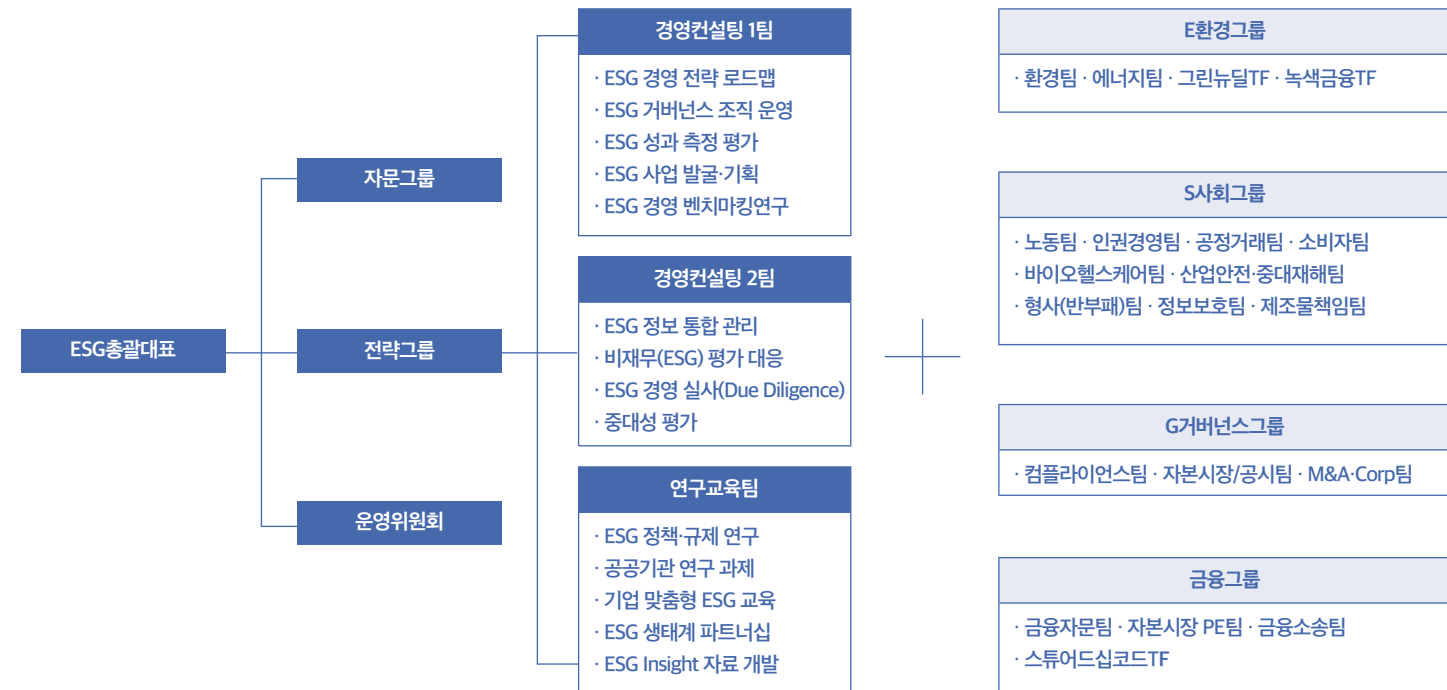
디지털경제그룹 및 그린뉴딜TF

지평은 그린 뉴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환경팀과 에너지팀, 공공정책팀을 주축으로 '그린뉴딜TF'를, D.N.A(Data, Network, AI), 스마트시티, SOC를 비롯한 각 산업·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디지털경제그룹'을 각각 구성하여 한국판 뉴딜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경제그룹'은 양영태 대표변호사가 총괄하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필수적인 개인정보,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데이터 기반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온라인교육·실감콘텐츠 등 비대면 산업과 플랫폼 사업, SOC 분야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시티 등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산업 분야별 전문가들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성택 대표변호사가 총괄하는 '그린뉴딜TF'는 환경, 에너지, 금융, 입법 분야의 전문가들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금융 자문을 비롯하여 각종 인허가 자문 및 소송, 배출권거래제(ETS), 스마트그리드, 그린모빌리티,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각종 기후변화 대응 자문, 인수합병(M&A)·구조조정 등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위험의 평가 및 대응 자문, 토양·대기·수질오염 등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까지 그린 뉴딜 관련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SG센터

지평 ESG센터는 국내 최고의 ESG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ESG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제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ESG 경영 리스크 및 성과 관리 차원에서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각 세부 자문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ESG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ESG센터는 대법관을 역임하고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비상임)을 맡고 있는 김지형 대표변호사가 고문을, 기업법무와 사회적가치의 조화, ESG 및 인권경영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임성택 대표변호사가 센터장을, 딜로이트 ESG전략담당 이사로 활동한 바 있는 이준희 그룹장이 지평 ESG센터 전략그룹 업무를 총괄하며, 금융감독위원회 출신으로 금융규제 업무를 오래 수행한 윤영규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으로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이준길 고문, 공익변호사단체 공감의 창립멤버로 공익변호사로 출발하여 처음으로 로펌의 구성원변호사가 된 김영수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환경·에너지법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류해정 변호사, 외국계은행 사내 변호사(임원) 출신으로 금융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전문가인 심희정 변호사,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사회정책과 인권경영을 공부하여 석사학위(MPA)를 취득한 민창욱 변호사,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에서 15년 간 상장 및 공시 업무를 담당했던 장영은 전문위원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환경팀

지평 환경팀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자연환경, 환경영향평가 등 전통적인 환경분야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모빌리티,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환경분야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관련 입법·정책 자문부터 개별적인 환경이슈에 대한 자문은 물론 소송을 포함한 환경분쟁의 해결까지 환경분야에 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팀

지평 인권경영팀은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진정, 민원, 소송 등 사건에 관해서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권경영체계 구축 자문, 인권영향평가 실시, 특정 인권 이슈에 대한 실사 및 조사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 경제 법제 구축, 임팩트 금융 자문 등에도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팀

지평 컴플라이언스팀은 부패방지·공정거래·금융·기업지배구조 등 개별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사전적 예방책 및 사후적 구제 절차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준법통제, 준법지원) 시스템 구축, 내부신고 수탁 및 대리, 내부조사 및 포렌식 업무, 노동·하도급·이사의 배임횡령 등에 대한 실태점검 등 기업의 준법감시 및 준법지원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중대재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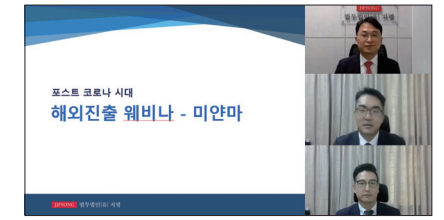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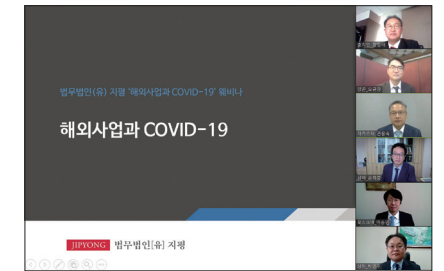
도급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이 2020. 1. 시행에 이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자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에는 다양한 리스크 발생이 예상되는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언상 모호한 개념이 많아 법 시행 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평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은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 ESG 전문변호사 등 노동·형사·기업법무·건설부동산·ESG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별 특색이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한국안전학회, 한국안전기술협회 등 외부 기관과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예방 및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외업무

지평이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국가에서는 법률 해석과 함께 현지 실무 관행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평은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제한으로 인해 현지 전문가의 조인 및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을 위하여 웨비나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날짜	세미나(웨비나) 명	해외사무소 (국가)
2020. 5. 27.	'해외사업과 COVID-19' 웨비나	러시아, 미얀마,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2020. 7. 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진출 웨비나 - 미얀마	미얀마
2020. 11. 26.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의 효과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 및 실무 검토' 웨비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04

법조윤리의 준수

지평은 고객, 임직원 및 회사, 국가와 사회에 갖는 윤리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윤리·준법경영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위하여 회사 설립과 동시에 「법무법인(유한) 지평 윤리헌장」(이하 ‘윤리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지평의 윤리헌장은 지평의 모든 구성원의 업무 수행과 일상생활에서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행동 원칙입니다. 지평의 모든 구성원이 윤리헌장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윤리헌장

지평은 설립과 함께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모든 구성원에게 관련법규와 윤리규범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윤리헌장은 의뢰인을 위한 충실의무, 고지의무, 정당한 범위의 업무처리, 보수의 크기와 무관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 쌍방대리 금지, 사익추구금지, 차별금지 등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운영

지평은 2016년 9월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6년 7월 1일 「윤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지형 대표변호사)를 정비하였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경영위원회가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의 대표변호사와 3명의 구성원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지평의 모든 구성원에게 법조윤리, 반부패 및 청렴의무준수 및 실천을 요구하며, 이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사윤리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지평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윤리교육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윤리헌장

1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전문 직역 또는 자신이 보좌하는 전문가의 직역에 따라 적용되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변리사법과 관련 규정, 공인회계사법과 관련 규정 등 일반적인 윤리규범의 내용을 항상 이해하고 성실히 지켜야 하며 지평의 구성원으로서 업무에 관하여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품위를 지켜야 한다.

2

지평의 구성원들은 지평의 구성원 사이에 합의된 신조, 협약 및 규칙을 항상 이해하고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지평의 구성원들은 보편적인 윤리 또는 사회정의에 반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내용의 업무를 수임하지 않으며 그러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4

지평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5

지평의 구성원들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과 사회정의 또는 직업적 양심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구성원들은 위임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거짓된 행동을 하거나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보수를 청구하지 않는다.

7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동일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대방을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8

지평의 구성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의뢰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9

지평의 구성원들은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투자를 비롯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10

지평의 구성원들은 공익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지평의 구성원들은 업무 처리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회사에 손해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였거나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자신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충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지평의 구성원들은 사회활동 과정에서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회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

지평의 구성원들이 이 윤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는 사항 또는 이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경영위원회, 윤리위원회 또는 자신이 보좌하는 전문가에게 보고하거나 질의하여야 한다.

윤리성 지표 준수

항목	존재여부
이익충돌 시 내부통제절차	있음
위법행위 발견 시 내부통제절차	있음
부정청탁금지법준수기준여부, 교육여부,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있음
전관 변호사 및 비법조인 전문가 활용에 관한 법조윤리정책	있음
비법조인 전문가 사건수임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있음
과다수임, 비윤리적 사건수임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있음

윤리 통제 절차

경영위원회와 각 팀장들은 윤리성, 청렴성, 반부패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윤리현장에 기초하여 논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위원회에 제보되거나 신고된 사건,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청 받은 사건, 경영위원회 및 감사가 조사를 요청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윤리현장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인력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발견 시 신고절차가 존재합니다.

공직 퇴임 전문가 근무 현황

법관, 검사, 장기복부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제31조 제3항).¹⁾ 지평은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를 영입하더라도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 사이에 근무하였던 국가기관의 사건에 관하여는 이들의 업무 개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2020년도에 공직퇴임 전문가의 업무수임으로 징계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1) 다만 검사는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2항 규정으로 인해 2년간 수임이 제한됩니다.

공직 퇴임 전문가 근무 현황

[법조인]					
	성명	공직 퇴임일	입사일	퇴직시 직위	
1	강경운	1998-08	2011-0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2	강호정	2012-02	2013-12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검사	
3	곽경란	2019-03	2019-03	대한민국국회 보좌관	
4	권창영	2017-02	2017-03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5	김강산	2019-02	2019-03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6	김동아	2019-02	2019-03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7	김지형	2011-11	2012-12	대법원 대법관	
8	문수생	2018-02	2018-03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9	박영주	2001-02	2001-02	부산지방법원 판사	
10	박정수	2015-02	2015-03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11	사봉관	2016-02	2016-03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2	성창익	2012-02	2017-12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3	신승기	2007-08	2012-06	부산지방법검찰청 특수부 검사	
14	엄상섭	2020-02	2020-03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15	오자성	2017-08	2017-09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검사	
16	이공현	2011-03	2011-03	헌법재판소 재판관	
17	이상근	2007-02	2012-06	부산고등법원 판사	
18	이재승	2020-08	2020-10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부장검사	
19	이홍재	2009-01	2013-04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외사부장검사	
20	임형태	2020-02	2020-0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21	장기석	2019-08	2019-09	제주지방법검찰청 차장검사	
22	정화찬	2007-02	2020-02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검사	
23	최세훈	2016-01	2016-02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검사	
24	최영남	2017-02	2017-02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5	한재상	2020-02	20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6	한재철	2002-02	2011-0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판사	

[비법조인]

	성명	공직 퇴임일	입사일	퇴직시 직위
1	강영주	2002-04	2009-09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	김두영	2019-06	2019-09	KOTRA 상임이사
3	김병률	2016-12	2017-0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4	김석동	2013-02	2015-04	금융위원회 위원장
5	김시문	2017-12	2018-01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6	서문용채	2011-02	2014-07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7	이준길	2006-11	2015-11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팀장
8	장영은	2018-02	2018-0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 상장부 팀장
9	진연수	2006-12	2012-11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사무관
10	최현민	2016-12	2020-11	부산지방국세청 청장

고객의 비밀 보호

로펌과 그 소속된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고객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평은 이를 윤리현장 제8조를 통해 한층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구성원들은 지평과 그 구성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평의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 및 의뢰인을 위하여 처리한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평의 구성원들은 의뢰인 및 의뢰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일상적인 말과 행동, 회사의 관리 및 제3자에 대한 관계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준수

지평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고객과 구성원, 실무수습참가자 등의 귀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보안 규정」을 마련하여 비밀등급에 맞게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안 및 안전 관리 지침」에서 문서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특히 고객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문서는 담당 전문가 또는 직원 외의 자에게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또한 관리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고객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관해 자체 점검 및 구성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서울사무소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에게 보안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개인정보 침해 구제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지평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성명 : 이소영	부서명 : 전산팀
직책 : 변호사	담당자 : 김진구 부장
연락처 : 02-6200-1721	연락처 : 02-6200-0715

이해충돌 방지

지평은 변호사법을 준수하는 것 이상의 엄격한 컨플릭트 체크 기준을 도입하여 새로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의 의뢰가 있을 경우 기존에 대리하는 의뢰인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철저하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고객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평 컨플릭트 체크 기준」은 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송뿐 아니라 자문·고문계약 체결 시에도 실질적 상당 전에 컨플릭트 체크를 하여 수임하거나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한 다른 사건에 대해 컨플릭트 체크를 하여 의뢰인의 신뢰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정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다른 대리인을 소개하는 등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5

고객과의 소통

지평은 직원, 고객, 공급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펌으로서 법조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뉴스레터,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고객에게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며, 고객과 끊임없는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웹과 모바일 어느 환경에서나 직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였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 회계 등의 전문분야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평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글을 엮은 '법률의 지평'을 발간하여 높은 수준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평 주최 세미나

지평은 법률, 회계, 협상 등 업무의 전문성과 기업,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증권, PE, 건설·부동산, 공정거래, 노동, 도산·구조조정, 지식재산권, 형사, 조세, 헌법, 행정, 보험, 해상, 국제중재, 상속·가사 등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평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문성과 실력, 경험, 지식을 고객 및 시민들에게 세미나, 강연, 기고 등의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2020년도 지평이 주최한 세미나

날짜	제목
2020. 2. 3.	노동법 고객 초청 세미나
2020. 2. 6.	회계규제 대응전략 세미나
2020. 5. 27.	'해외사업과 COVID-19' 웨비나
2020. 6. 24.	'LEGAL 500 기업의 위기대응 가이드,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 웨비나
2020. 7. 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진출 웨비나 - 미얀마
2020. 10. 30.	지평 · 두루,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 심포지엄
2020. 11. 26.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의 효과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 및 실무 검토' 웨비나



06

법제연구

지평의 법제연구

지평은 공공이익을 위한 투자와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공공분야의 법률자문 및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영역을 적극적으로 수임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법률가 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믿고, 더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사회적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2020년도에 총 16건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및 자문 영역을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지평이 수행해온 법제연구 및 자문
온라인 저작권 관리 · 개선 방안 컨설팅 및 연구
국제법률협력요원순직심사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 관련 자문
산업 · 에너지 ODA 사업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 제 · 개정 용역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검토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마련 연구 용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검토
기술료 요령 개정안 작성
MT-AAP-2001공항시설법 개정안 검토
물환경보전법 해설서 연구 용역
가명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령 제도개선용역
SPC 제도화 방안 연구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용역
수용자 자녀 입법 연구 및 추진
코로나 사태 관련 용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정비 방향 도출 연구 자문
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07

법학 교육 지원

지평 · 두루 2020년도 하계 · 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지평은 2020년도 하계에 2차에 걸쳐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45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주의 기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구분	기간	대상	인원	법학전문대학원
2020년도 하계 실무수습	1차 2020. 6. 29. ~ 7. 8.	2학년 (117)	27명	서울대(9), 연세대(5), 고려대(2), 성균관대(2), 이화여대(1), 한양대(2), 서강대(2), 중앙대(1), 경희대(1), 아주대(2)
	2차 2020. 7. 13. ~ 7. 22.			26명

두루는 2020년 겨울에 3주, 여름에 2주 동안 각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두루의 실무수습은 공익소송 기록 검토, 서면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공익단체 등 NGO와의 협력 및 교류, 그 외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두루는 공익변호사의 진로를 꿈꾸는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공익변호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익변호사 양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구분	기간	대상	인원
2020년도 동계 실무수습	2020. 2. 3. ~ 2. 21.	1학년, 2학년	11명
2020년도 하계 실무수습	2020. 8. 10. ~ 8. 21.	1학년, 2학년	10명

법학 교육 지원

지평의 변호사들은 후배 법조인의 양성을 변호사의 중요한 책무로 생각합니다. 이에 지평은 예비법조인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평의 변호사들은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 대학교에 직접 출강하여 학생들에게 생생한 실무경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8명의 지평 변호사가 5개의 법학전문대학원과 1개 대학교에 출강하였고, 2020년에는 6명의 변호사가 4개의 법학전문대학원과 1개 대학교에 출강하였습니다.

법학 교육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출강현황

성명	교육기관
임성택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승수 변호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권창영 변호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배성진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원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김동아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평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후기

다가올 날이 기다려지는 곳, 지평

임예현 지평 실무수습

2주가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평을 경험했던 그 시간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턴기간 내내 함께 해주셨던 변호사님들의 목소리에는 지평에 대한 애정과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묻어났고, 동료 변호사님을 향한 시선에는 신뢰와 존중이 가득했습니다. 조직의 발전 동력이 사람에 있음을 믿는 지평의 철학이 그대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지평의 변호사님들은 유능한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전문성의 실현이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법률전문가로서 가져야 하는 사명감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배님들과 함께라면 변호사로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평을 떠올리면, 유능한 법률전문가로서 나아갈 모습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 곁에서 배우며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도 함께 그려집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중한 실무수습경험을 잊지 않고 전문성과 따뜻함을 모두 갖춘 변호사로 성장하는 과정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후기

평생 가슴 뛰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남장현 두루 실무수습

두루에서의 실무수습 과정은 크게 자율적인 과제 수행과, 영역별 소개 및 특강 시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매일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진행되었던 영역별 소개와 특강의 내용은, 그간 한 번도 고민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자극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장슬기 두루 실무수습

두루에서 보고 들은 하나 하나의 이야기와 거기서 느낀 감정들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닦치는 순간마다 되새겨볼 수 있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두루에서 얻은 또 한 가지는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동료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 자체로 즐거웠고, 앞으로 다른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실무수습을 한 인턴분들과 변호사님들을 알게 된 것 자체가 큰 행복이었습니다.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4부 .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 전문가 공동체

지평의 구성원들은 본인의 전문성과 관심에 따라 공익활동을 담당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평의 구성원이 수행한 공익활동 시간을 합산하면 총 8,930.85시간에 달하며, 이를 환산하면 6,351,526,700원에 해당합니다. 공익활동을 통해 이룬 제도개선과 소수자 권익증진 성과의 가치는 위의 단순 환산 가치를 크게 넘어섭니다. 지평은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과 기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현장을 경험하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지평의 공익활동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공익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평의 총 공익활동 시간은 8,930.85시간으로 2019년 대비 622.4시간이 늘었습니다. 변호사 1인당 공익활동 시간은 40.59시간,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의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47.50시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익활동 대상자인 220명의 국내변호사 중 85.45%인 188명의 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참여하였고, 이 중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의 비율은 45%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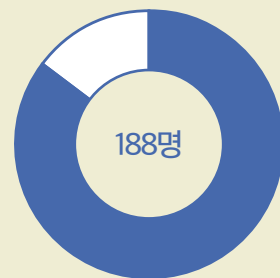
총 공익활동 시간
8,930.85시간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40.59시간 (8,930.85시간/2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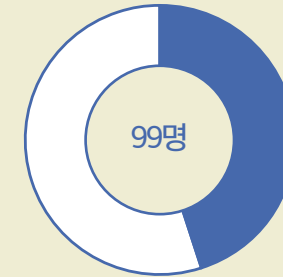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85.45 % (188명/220명¹⁾)



1) 공익활동 대상인 한국변호사 + 서울사무소 외국변호사 숫자

3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45 % (99명/220명)



사회봉사활동 총 시간
3,691.84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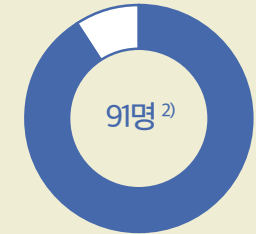


로펌 구성원 1인당 사회봉사활동 시간
7.89 시간 (46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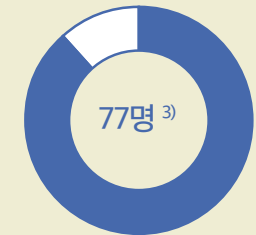


소속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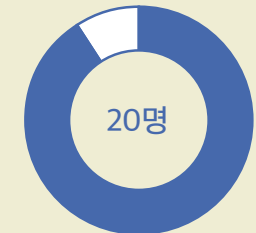
소속변호사
81.98 %
(91명/111명)



구성원변호사
88.51 %
(77명/87명)



외국변호사(서울)
90.91 %
(20명/22명)



- ※ 본 지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에 따라 산출한 것입니다.
- ※ 지평 소속 국내변호사(지방사무소·해외사무소 포함)와 외국변호사(서울사무소) 220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공익전문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소속 변호사)의 활동 시간은 제외하였습니다.
- ※ 비법률분야 공익활동은 지평의 전체 구성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공익활동 대상인 한국변호사 중 소속변호사의 숫자
3) 공익활동 대상인 한국변호사 중 구성원변호사의 숫자

공익활동

5대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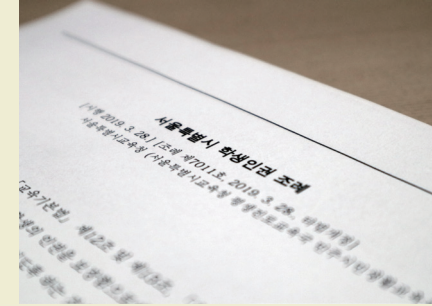
군 영창제도 폐지 및 위헌 결정

군대에서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옛 군인사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올해 초 영창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된 것에서 한 발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수년에 걸친 문제제기 끝에 영창제도는 12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구조대상과 공익상 수상

지평은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구조대상'과 '공익상(송무)'을 수상하였습니다. 혐오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은 공로와 공항난민 가족을 대리하여 난민 심사의 기회를 얻은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관련 결정 디딤들 판결 선정

헌법재판소는 '차별과 혐오의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가 함께 대리하여 합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 사건은 제36회 한국여성대회에서 디딤들을 수상하였습니다.



환경소위원회 신설

지평이 공익위원회 산하에 환경소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 영역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환경 분야는 지평에서 2020년에 처음 시도하는 공익활동 영역입니다. 점차 환경 분야에서 할 일이 많아지는 만큼, 지평 환경소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됩니다.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지평과 두루가 오랫동안 지속해온 입법운동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아동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의 주체입니다. 이번 개정이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2

법률 공익활동



장애 인권 활동

지평의 장애인권소위원회는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소송과 법률자문 및 법·제도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소송 수행
-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 항소심 수행
- 장애인 작업장 내 인권침해 등 형사사건 지원
- 「국가공무원법」 피성년후견인 당연 퇴직 규정에 대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수행
- 장애인 차별상담사를 위한 법률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실시

아동·청소년 인권 활동

지평의 아동청소년교육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 앞에 닥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함께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소송,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 국제연대활동, 법률교육, 자문과 상담을 수행합니다.

주요 활동

- 수용자자녀 법률지원 및 제도개선 운동, 법률매뉴얼 제작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관련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 입법운동
- 애란원 법률교육, 법률자문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법률교육 및 법률자문
- 찾아가는 법률교육

사회적경제·기업공익 활동

지평의 기업공익법연구회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입법지원, 제도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S사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 법률지원
- S공사 인권경영지표 개발 연구 및 인권영향평가 용역
- 루트임팩트, 크레비스파트너스, SOPOONG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대상 법률자문
- 1번호사 1소셜벤처 매칭사업
- 헤이그라운드 입주사 대상 법률 및 인권 교육
- 소셜벤처-변호사 매칭 사업 기획 및 진행

국제 인권·이주민 인권 활동

지평의 국제인권소위원회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및 해외 NGO,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평 해외사무소를 통해 법률가의 해외봉사활동 및 공익법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난민인정신청 조력,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 대리
- 난민인정신청 과정에서의 통·번역 피해자 중 난민심사 재신청자 조력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신청 등 외국인 구금 해제 조력
- 공항 구금 난민신청자 가족 난민심사불회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 난민인권센터 지원, 난민 네트워크 참여 및 난민 혐오 대응 실무그룹 참여

환경 공익 활동

지평의 환경소위원회는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인권을 위협하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송과 자문 및 연구 등 법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 사내의 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경 전문가를 초대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환경일보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협력 활동
-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환경관련 사회적기업과 1번호사 1소셜벤처 매칭사업 진행

기타 공익 활동

지평 공익위원회는 선거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통일, 여성 인권, 군 인권 등 다양한 공익법 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선거의 자유 / 선거기간 중 집회·모임 관련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 통일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자문
- 여성 인권 / 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에 의한 살인 사건 유족 대리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 군 인권 / 군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 기타 /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 기타 /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변호 및 위헌소송

주요

공익활동

소개

공익변호사 생태계 조성 사업

사업 개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전업 공익변호사는 2020년 기준 약 120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변호사 경력이 짧고 네트워크와 정보가 부족해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평의 후원으로 실시된 2019년 공익변호사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익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새내기 공익변호사의 업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두루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공동으로 제1회 새내기 공익변호사 실무교육 프로그램 '슬기로운 공변생활'을 기획·진행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의 업무 경험을 토대로 공익변호사로서 개인의 성장과 단체의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에 2020년 6월 15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7주간 8개 단체에서 일하는 9명의 1~3년 차 변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두루에서는 예비법조인이 공익변호사 단체를 경험하고 공익인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매년 하계, 동계 실무수습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동계 11명, 하계 10명의 실무수습생이 두루에서 공통과제, 영역별 업무소개, 영역별 과제 및 강평, 두루 변호사 외부 일정 동행 등의 다양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3주간 진행된 동계실무수습에서는 두루와 함께 활동하는 단체에 실무수습생들이 파견되어 NGO 업무를 경험하고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업 연혁/일정

•2015년부터 매년 두루에서 하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진행 •2018년 9월 ~ 2019년 7월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연구 진행 •2019년 8월 22일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 주관 •2019년 9월 4일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발행 •2020년 6월 15일 ~ 2020년 7월 31일 '제1회 슬기로운 공변생활' 진행 •2021년 예비 법조인을 위한 공익적 법조 진로 실태조사연구 예정

사업 결과/현황/성과 등

두루 실무수습 •총 11회 진행 •참여 누계 인원 : 113명
•지원자 누계 인원 : 767명 •공익변호사 배출 인원 : 5명
제1회 슬기로운 공변생활 •8개 단체에서 일하는 9명의 새내기 공익변호사 참여 •7주간 주3회, 168시간 진행(8개의 과제, 4개의 특강 프로그램)

수용자자녀 권리 옹호를 위한 입법운동



사업 개요

지평과 두루는 수용자자녀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법을 바꾸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자녀'란 양육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아동을 말합니다. 수용자자녀는 갑작스러운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고 부모와 함께 살 수도, 만날 수도 없게 됩니다. 부모가 수용되었다는 이유로 따돌림, 편견과 낙인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용자자녀를 '잊혀진 피해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2015년부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등 현장단체와 함께 수용자자녀가 부모의 형집행과 관계없이 아동으로서 보유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지원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양육되는 유아의 권리보장 문제, 수용자자녀가 겪는 사회복지급여 지급, 형사피해사건, 소년보호사건, 친권과 후견권 문제 등에 관한 각종 상담과 자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와 연구, 대한민국의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위한 심의대응 및 모니터링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본격적으로 수용자자녀의 권리 옹호를 위한 입법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등

과 함께 수용자자녀 입법TF를 꾸렸습니다. 현장사례를 기초로 아동보호체계에서 수용자자녀가 직면하는 한계와 어려움을 정리해 입법의 필요성을 되짚고, 수용자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회기 안에 수용자자녀의 권리와 지원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업 연혁/일정

•2017년 수용자자녀 국제연대 컨퍼런스(INCCIP) 참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2019년 형집행법 개정(2017년 연구 토대로 수용자자녀 면접권 확대, 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자문) •2019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지정법인 선정,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 수행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대응 활동(수용자자녀 관련 최초의 권고)
•2020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자문협력)
•2020년 법무부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TF' 위원 활동

사업 결과/현황/성과 등

2020년 12월 형집행법, 형사소송법, 치료감호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의원실 대표발의): 수용자자녀 정의, 체포와 구속 및 형의 집행 단계에서 아동보호체계와의 연계, 기본계획 및 협의체 구성, 교정시설 내 유아양육기간 연장 등

장애인권 상담가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사업 개요

"장애인차별 사례를 직접 상담하는 전국 장애인차별상담전화(1577-1330)의 전화는 쉴 틈 없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는 이들은 전국 장애인차별상담전화 네트워크에 속한 53개 상담소의 상담사들입니다. 이들은 전화로 또는 현장을 찾아가서 여러 차별사례들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합니다."

전국적으로는 매달 평균 265건의 상담사례가 위 상담 전화를 통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상담전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후원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상담가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열악한 여건에서 장애인 인권을 위해 뛰는 상담가들에게도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제도는 항상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평과 두루는 지역의 상담사들을 위한 법률교육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평과 두루는 올해 광역별로 장애인차별상담소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두루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인천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부산, 경남 등 7개의 지역의 장애인상담전화를 찾아가 상담에 필요한 법률(제도)관련 교육과 '장애인 인권 상담 매뉴얼' 활용방법을 교육하고,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지역 사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조건에서 비대면 교육을 강화하고 법률(제도)지원을 위하여 매뉴얼 책자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의 후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결과/현황/성과 등

•교육 총 52명(지역 상담가 48명, 공익변호사 4명 대상) •매뉴얼 300부 배포•교육 동영상 11개 제작 •참여 변호사 13명

03

비법률 공익활동

사회
공헌
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지평과 두루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서대문구 연희동에 소재한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제빵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하에 10명 이하 모임 규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여 독거 어르신 및 탈북민, 노숙자에게 제공할 빵을 만들었습니다.

점자도서 원고 입력

지평과 두루는 성북시각장애인지원과 함께 점자도서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외부 봉사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점자도서 제작 봉사활동은 점자입력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었고,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은 점자 도서 입력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무료급식 봉사활동

지평과 두루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저녁,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저녁식사 배식을 지원하고 설거지와 청소 등 마무리 정리를 돕고 있습니다.

점자도서 입력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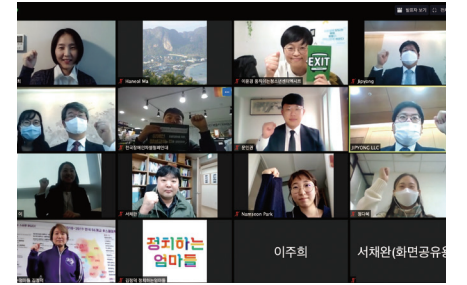
기부
활동

재정기부활동

지평과 두루는 2010년부터 매칭그랜트(구성원이 공익단체에 후원하는 금액만큼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1대1로 매칭하여 후원하는 제도)를 통해 구성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칭그랜트 외 주요 기부]

- 이음장애인자립센터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이음여행' 지원 · 이화여자고등학교 취약계층 학생 장학금 지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자립전환 프로그램' 지원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후원 음악회, 바자회 지원
- 이주민센터 '친구' 지원 · 탈북자자녀 대안학교 '겨레얼 학교' 지원 ·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 지원 ·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지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법캠프 지원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연' 캠프 지원 ·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지원 · 난민인권센터 인건비 지원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지원 · 장애인인권활동 공간마련을 위한 '벽돌기금' 지원 ·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알기 쉬운 발달장애인법 해설서" 제작 사업 지원 ·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익인권적 접근과 고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와 공동선 증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총 9개 단체를 선정하여 공익인권활동과 공익소송,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04

환경정책

지평은 미래 세대에게 대물림해야 하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 그린오피스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도 다음으로 미뤄서도 안 되는 인류의 당면 과제로 로펌으로서의 이익창출 외에 공익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더하여 온실가스 절감을 통한 저탄소형 사업장 실현과 에너지 효율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경영 정책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소위원회 신설

환경 문제가 기후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와 결합하면서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2020년 공익위원회 산하에 환경소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 영역의 공익업무를 수행하고, 지평의 사내 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소위원회는 환경공익 소송, 자문 및 연구를 실시하고 환경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환경일보와의 업무협약

지평과 두루는 2020년 12월 1일 (주)환경일보와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변화는 제조, 건설, 서비스 등 산업 전반의 생태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각종 이슈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의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평과 두루, 환경일보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을 포함한 공동의 환경목표를 이루기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지평의 환경팀은 2020년 12월 16일 농업인, 가스검침원, 방송노동자, 건설노동자, 해수면 상승지역 거주민, 기후우울증 피해자 등 41명의 진정인을 대리하여 기후위기로 인해 생명권과 건강권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진정을 통해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미흡한 정부의 대응으로 인한 인권침해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구제 조치와 이행, 법령과 정책 개선을 권고하고 의견표명을 요청하였습니다.

Paperless Office

지평은 탄소배출 감소 및 자료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을 줄이고자 Paperless Office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이와 프린터기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 뿐 아니라 쌓여있는 서류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미세먼지의 감소를 통해 업무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입니다.

2020년에는 종이 사용량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재택근무의 비중이 높아지고, 온라인 회의가 많아지면서 인쇄물로 자료를 배포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단위	2017년 소비량		2018년 소비량		2019년 소비량		2020년 소비량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복사용지 1BOX (2,500장)	1,290	4.69	1,340	4.49	1,345	4.13	1,210	2.59

에너지 소비 절감 프로젝트

지평은 점심시간 및 퇴근 후 일괄 소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실천소모임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으며,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불편함도 있었으나 2020년 현재 전사적 정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평의 서울사무소는 지속적인 인원 증가와 사무실 확장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전기 및 수도 사용량,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1인당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해 왔고, 내부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탄소발생 절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의 증가로 사무실 내 전기 사용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1인당 전기 소비량은 1733.75kWh로 그 이전 3개년 평균인 2151.52kWh보다 417.77kWh 감소하였고, 이는 소나무 29.5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지평은 장기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배출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2017년 소비량		2018년 소비량		2019년 소비량		2020년 소비량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전기(kWh)	595,924	2,167.00	658,610	2,210.10	675,178	2,077.47	662,293	1,733.75
수도(t)	266	0.97	304	1.02	362	1.11	445	1.16
온실가스 배출량 (CO ₂ eq, kg)	366,191.4	1,331.61	408,037.8	1,369.25	435,019.5	1,338.52	308,974.9	808.83

(온실가스 발생량은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친환경 차량 정책

지평은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온실가스 감축이 전세계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친환경 차량 이용으로 사회적 책임의 한 부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9		2020	
	대수	비율	대수	비율
전체 법인차량	41	100%	52	100%
친환경 차량	9	21.9%	13	25%
- 하이브리드 차량	7	17%	11	21%
- 전기 차량	2	4.9%	2	4%

환경실천소모임의 구성

지평은 2015년 9월부터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자는 마음으로 사내 소모임인 환경실천소모임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월별 정기모임을 통하여 사내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환경실천 프로젝트를 논의하며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실천소모임이 제안하는 다양한 캠페인들은 지평의 환경 정책 설정에도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절약 캠페인'을 중심 과제로 삼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고책방' 등과 같이 모두가 참여하는 자원순환 운동을 기획하여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재사용 커피컵 홀더 만들기' 및 사용을 독려하고, '환경실천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구성원들의 환경보호 실천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을공원 숲 가꾸기

지평과 두루는 11월 14일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노을공원에서 '노을공원 숲 가꾸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봉사 활동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개인의 일상에 건강한 에너지를 충전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올해는 23명의 구성원과 가족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노을공원 경사면에 조성된 '동행숲(동물이 행복한 숲)'에 묘목을 심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평은 매해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J I P Y O N G S U S T A I N A B I L I T Y R E P O R T

A P P E N D I X

G

GRI 인덱스

GRI STANDARDS		지표명	페이지	상세사항
일(GRI100)				
조직 프로필	102-1	조직 명칭	6	범무법인(유한) 지평 (JIPYONG LLC)
	102-2	활동, 브랜드, 제품, 서비스	6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
	102-3	본사의 위치	6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102-4	사업 지역	6-7	(국내) 서울 / 순천 / 부산 / (해외) 상하이 / 모스크바 / 호치민시 / 하노이 / 자카르타 / 비엔티안 / 양곤 / 프놈펜
	102-5	소유형태와 법적 형태	6	범무법인 (유한)
	102-6	시장 영역	6-7	11개 해외 및 국내사무소에서 기업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102-7	조직의 규모	7	사무소: 11개 구성원: 총 468명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7, 20	468명(전문가/직원 268/200명, 국내/해외 397/71명)
	102-9	조직의 공급망		노동, 환경,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구매 확대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10, 28-29, 61	코로나19의 확산과 대응 ESG센터의 설립
전략	102-11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6, 42-45	경영위원회의 책임으로 운영, 재무, 준법에 관한 리스크를 관리 윤리현장 마련과 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업 윤리의 위반을 예방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13, 73-75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17),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102-13	협회 멤버십		지평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자력국가의 변호사회에 가입
	102-14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성명서	2-3	대표변호사 인터뷰
윤리성과 청렴성	102-15	주요 영향, 위험 그리고 기회	10, 28-29, 61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관련 서비스 제공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규범	8, 9, 42-43	지평의 가치(사람중심, 진정성, 진취성, 윤리성) 2020년 경영 키워드(행복한 스물, 담대한 도전) 윤리현장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법조윤리 준수 기준 제시
	102-17	윤리 관련 안내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42-45	윤리위원회에서 윤리 관련 문제를 신고받아 이를 조사하고 처리
거버넌스	102-18	지배 구조	6	파트너총회를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하고 대표변호사와 경영위원회가 책임경영을 실천
	102-19	권한 위임	6	경영위원회 아래에 사회적가치 경영을 위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를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 사무국을 설치
	102-20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에 대한 임원급의 책임	10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위원장: 임성택 대표변호사
	102-21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11-15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에 관해 협의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산하 위원회 구성	6	경영위원회는 대표변호사(김지형, 양영태, 임성택)와 경영위원(양영태, 김삼준, 사봉관, 이소영, 이행규, 정원)으로 구성 사회적가치위원회, 공익위원회, 홍보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마케팅 위원회, 문화소통위원회, HR위원회
	102-23	최고의사결정기구 의장	6	지평의 대표변호사: 김지형, 양영태, 임성택
102-24	최고의사결정기구 추천과 선정	6	파트너총회에서 선출	

	102-26	목적, 가치, 전략 수립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	6	경영 기본 방침 및 주요 의사결정은 파트너총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
	102-27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집단지식	6	경영위원회는 사회적가치위원회와 7개의 위원회를 통해 위원회의 영역별로 의견 수렴,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집단지식 강화
	102-28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성과에 대한 평가	33	경영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구성원들이 경영평가 실시하고 그 내용을 구성원에 보고
	102-29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의 파악과 관리	10	사회적가치위원회와 사무국을 통해 업무별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 실천 과제 계획 및 진행
	102-30	리스크관리 절차의 효과성	6	경영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를 통해 운영, 재무, 준법 등에 관한 리스크 관리
	102-31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의 검토	10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
	102-32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78	지속가능성보고 내용의 검토, 발간, 배포
	102-33	중요 사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6	경영위원회는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의 목록	11-13	구성원, 고객, 지역사회, 법조사회(법률가, 예비법률가), 협력사, 언론
	102-41	단체협약	31-32	노사협의회와 예비구성원회의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채용 및 교육훈련, 안전·보건 그 밖의 근무환경 개선과 구성원의 건강증진 등을 협의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11-13	법적 의무사항의 존재, 조직의 활동에 의한 긍정/부정적 영향, 조직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 조직의 활동 및 이슈에 개입, 조직의 특정 활동 및 이슈를 지원, 조직이 목적의 책임을 다하도록 영향, 가치사슬, 조직 전반의 활동에서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
	102-43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식	11-13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소통 채널 마련 구성원(노사협의회/예비구성원회의, 사내챗진, 내부 공모전, 고충창구, 경영만족도 조사) 고객(고객초청세미나, 고객 뉴스레터) 지역사회(법률/비법률 공익활동, NGO 협력사업, 업무협약) 법률가(회무 및 각종 위원회 활동참여·협력, 전문 세미나, 법제연구) 예비법률가(실무수습, 채용설명회, 법학교육) 협력사(구매미팅, 방문) 언론(보도자료, 인터뷰) 공통(소통하라인, 뉴스레터, 홈페이지, SNS, 유튜브, 각종 간행물)
보고서 관행	102-44	이해관계자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 및 관심사	14-15	사회적가치 경영의 실현 내재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이해관계자 의견의 경영활동 반영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 ESG, 신기술, 신산업 등 신규 업무영역의 개척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구성원의 안전 및 보건 강화(코로나19 대응 등) 구성원 역량 개발 및 교육
	102-45	조직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회사 (자회사 및 합작회사)의 리스트		없음
	102-46	보고 내용과 토픽의 경계의 정의	78	본 보고서는 범무법인(유한) 지평의 서울사무소를 주요 경계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성원에 관하여는 모든 사무소의 구성원수를 반영하였습니다.

102-47	중요 토픽 리스트	10	사회적가치 경영의 실현, 내재화
		12-13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이해관계자 의견의 경영활동 반영
		34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50-65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16-33	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
		39-41	ESG, 신기술, 신산업 등 신규 업무영역의 개척
		31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26, 28-29	구성원의 안전 및 보건 강화(코로나19 대응 등)
102-48	(이전 보고서) 정보의 재기술		2019보고서 (19쪽) 각주 4) 1대1 매칭그랜트 중 구성원이 기부한 금액 미포함, 지평 보조 금액만 포함
102-49	(중요 이슈 및 범위 관점) 보고의 변화	32	주요 쟁점이나 보고 범위의 변화는 없음
102-50	보고기간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 대표변호사와 경영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 기준(6쪽)
102-51	가장 최근 보고 일자		2020년 7월 30일
102-52	보고주기		1년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사회적가치위원회 사무국
102-54	GRI Standard에 따른 보고 방식		이 보고서는 GRI Standards(Core Option)을 따르고 있음
102-55	GRI 인덱스	68-72	
102-56	외부검증	78-79	한국경영인증원

경제(GRI200)

경제 성과	201-3	조직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총당	구성원 10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201-4	정부의 재정지원	재정지원 없음
간접 경제효과	203-1	공익을 위한 투자와 서비스 지원활동	5.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참고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 파급효과 및 영향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법치주의의 구현
반부패	205-1	사업장 부패 위험 평가	사업장 부패 위험 평가 미실시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윤리위원회에서 교육 실시
	205-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보고기간 동안 부패 사례 없음
반경쟁적 행위	206-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와 그 결과	보고기간 동안 법적 조치 없음
	207-1	세금에 대한 경영접근	관련 규정 준수
세금	207-2	세금에 대한 거버넌스,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재경 담당 경영위원과 재경팀을 통해 세금관련 절차 준수 및 통제
	207-3	세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경영	국세청 등 관련 정부 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지방소득세 등 통해 지역사회 세수 기여

환경(GRI300)

에너지	302-1	조직 내부 에너지소비	2020년 총 전기소비량은 662,293kWh
	302-2	조직 외부 에너지소비	친환경 차량 도입 정책
	302-3	에너지 집약도	2020년 1인당 전기소비량은 1733.75kWh
	302-4	에너지 소비 절감	총 전기소비량은 2019년 675,178kWh에 비해 2020년 12,885kWh 감소
	302-5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1인당 전기사용량이 지난 3개년 평균에 비해 2020년 약 19.4%가 감소

용수	303-5	용수 사용량	64	2020년 수도 사용량 총 445t, 1인당 1.16t
생물다양성	304-3	서식지 보호 또는 복구	65	노을공원 숲 가꾸기
배출	305-2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Scope 2)	64	2020년 온실가스(CO ₂)배출량 총 308,974.9 CO ₂ eq, kg
	305-4	온실가스(GHG) 배출 집약도	64	2020년 온실가스(CO ₂)배출량 1인당 808.83 CO ₂ eq, kg
	305-5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64	총 온실가스(CO ₂)배출량은 2019년 435,019.5 CO ₂ eq, kg에 비해 2020년 126,044.6 CO ₂ eq, kg 감소
컴플라이언스	307-1	환경법 및 규정 위반		보고기간 동안 위반사항 없음

사회(GRI400)

고용	401-1	신규 채용과 이직	21	입사 93명, 이직 및 퇴직 30명
	401-2	비정규 직원 혹은 파트타임 직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정규직 직원 대상의 보상		없음(99.7%가 정규직)
	401-3	육아휴직	32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총 10건
노사관계	402-1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		근로기준법(해고 30일 전 예고) 준수
산업안전보건	403-1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31	노사협의회를 통해 안전·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등을 협의
	403-2	위험 파악, 위험 평가 및 사고 조사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미실시
	403-3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31	노사협의회를 통해 안전·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등을 협의
	403-4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상담 및 소통	31	노사협의회를 통해 안전·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등을 협의
	403-5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훈련		면제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2항 마목 '기타 전문서비스업')
	403-6	근로자 건강증진	28	종합건강검진비용 지원
	403-7	사업 관계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안전보건 영향 예방 및 완화		사업 관계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급 및 업무 없음
	403-8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적용되는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전원
	403-9	업무 관련 상해		보고기간 동안 없음
	403-10	업무 관련 질병		보고기간 동안 없음
훈련 및 교육	404-1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시간	23	11.3시간
	404-2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22-24	지평아카데미, 금요세미나, 변호사 장기연수, 업무별 세미나 등
	404-3	정기적 성과 및 경력 개발 리뷰를 받은 임직원 비율	24	한국 소속변호사(상반기 94.7%, 하반기 91.8%), 직원(93.7%)
다양성과 기회 균등	405-1	거버넌스 기구 및 임직원의 다양성	18-21	성별·연령별·국적별 구성원 비율 소수자 구성원의 수(장애인 11명, 탈북민 1명)
	405-2	남성 대비 여성의 기본급여 및 보수 비율		동일 직급 내 급여 차이 없음
차별금지	406-1	차별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시정조치		보고기간 동안 없음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407-1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또는 공급업체와 예방조치		보고기간 동안 없음
아동노동	408-1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보고기간 동안 없음
강제노동	409-1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파악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보고기간 동안 없음
보안 관행	410-1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은 보안요원		해당사항 없음 (고용된 보안요원이 없음)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원주민 권리	411-1	원주민 권리 침해 사건의 수		보고기간 동안 없음
인권 관리 평가	412-1	인권영향평가 혹은 인권 검토 대상 사업장	30	서울사무소(인권영향평가 실시)
	412-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교육	26-27	장애인식개선교육, 성평등교육 등 실시
	412-3	인권 조항 또는 인권 심사 시행을 포함한 주요 투자 협약과 계약	12-13	보고기간 동안 없음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장		서울사무소는 지역사회를 이해관계자로 설정하여 법률교육, 상담, 자원봉사, 기부 실천
	413-2	지역사회에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없음
공급업체 사회적 평가	414-1	사회적 영향평가를 통해 걸러진 신규 공급업체		사회적 영향평가 미실시
	414-2	공급망 내 주요 부정적 사회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주요 부정적 사회적 영향 없음 (단순 소비재 구매)
공공정책	415-1	정치적 기부		보고기간 동안 없음
고객 안전보건	416-1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 평가		미실시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규정 위반 사건		보고기간 동안 위반사항 없음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417-1	제품 및 서비스의 정보 및 라벨을 위한 요건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업무광고규정」 준수, 홍보위원회의 승인 절차
	417-2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및 라벨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와 형태		보고기간 동안 위반사항 없음
	417-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와 형태		보고기간 동안 위반사항 없음
고객개인 정보보호	418-1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보고기간 동안 불만사항 없음
컴플라이언스	419-1	사회적 경제적 영역의 법률 및 규정 위반		보고기간 동안 위반사항 없음

2015년 제 70차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입니다.¹⁾

1) 지속가능발전포털,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http://ncsd.go.kr/unsdgs>, (2020년 5월 5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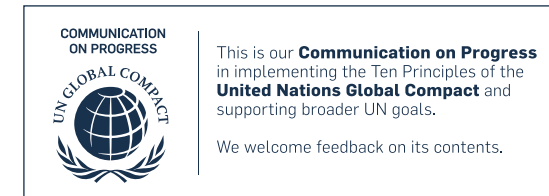
SDGs	활동	페이지
Goal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Goal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 농업 증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무료급식 봉사 60
Goal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운동 55 코로나19 대응 28-29, 61
Goal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외부 강연, 세미나 및 법학교육 지원 22-25, 48-49 새내기 공익변호사 실무교육 58 장애인권 상담가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교육 59 겨레얼학교 후원 61 이화여자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61 점자도서 원고 입력 60
Goal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역량강화	애란원 법률교육과 법률자문 56 성평등 교육 및 고충상담창구 26-27 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에 의한 살인사건 유족 대리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57
Goal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Goal 7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 보장	에너지 · 자원 · 인프라팀 업무 37
Goal 8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ESG센터 설립 40 환경팀, 인권경영팀, 컴플라이언스팀, 산업안전 · 중대재해팀 신설 40-41 난민인권센터 인건비 지원 57 일과 삶 균형지침 제정 32
Goal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와 혁신 증진	1변호사 1소셜벤처 매칭 등 소셜벤처 지원 10

유엔글로벌콤팩트

SDGs	활동	페이지
Goal 10	국내 또는 국가간 불평등 완화	26
	소수자 차별금지 정책	61
	탈시설, 활동지원, 장애유아 교육권 법 개정 운동	55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합헌결정 장애인 자립전환 프로그램 지원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56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확립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한 조치 시행	57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환경관련 사회적기업과 1번호사 1소셜벤처 매칭사업 진행	
	에너지 소비 절감 프로젝트 친환경 차량 정책	64
Goal 14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Goal 15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 황폐화 중단과 보존,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65
Goal 16	정의 증진,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26-27
	혐오표현 조사 및 개선을 위한 노력	49
	법제연구 및 자문	42-43
	윤리헌장 제정 및 실천	54
	군 영창제도 폐지 및 위헌 결정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합헌결정	55
Goal 1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75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입니다. 지평은 2019년 10월 17일 국내 로펌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였습니다. 지평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이념과 10대 원칙을 적극 지지합니다.

1)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글로벌콤팩트 소개" <http://unglobalcompact.kr/about-us/intro/> (2020년 5월 5일 확인).



구분	원칙	활동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지평은 사회정의와 인권실현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를 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하였습니다. 지평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지하고 준수하며, 유엔 인권규범에 대한 대한민국 심의에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지평은 다양한 법률·비법률 공익활동을 통해 국내외 인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동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한다.	지평은 노사협의회와 예비구성원회의의 활동을 촉진·보장하며 구성원과의 소통과 협의를 중시합니다.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지평은 성별, 연령, 장애, 출신지역과 국가에 따른 차별없이 다양한 구성원을 채용하며,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소수자차별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한다.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지평은 ESG센터와 환경팀, 환경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지평은 사무실의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업무용으로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며 일상 속에서 다양한 환경 실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지평은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모든 형태의 위법과 부패를 예방·통제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평가지표

법률분야 공익활동

분야	평가지표	2020년
구조	공익활동위원회 설치 여부	있음 지평 공익위원회
	공익활동 규정 제정 여부	있음
	공익활동 프로그램 / 목표 설정 여부	있음
	공익활동 전담변호사 고용 여부	있음 10:220(외국변호사 제외 9:198) ¹⁾
	공익활동 코디네이터 고용 여부	있음
	공익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제공 여부	있음 두루 상근변호사 및 직원, 공익위원회 직원을 통한 공익활동 코디네이터 등 행정업무 지원
	공익활동 관련 교육 제공 여부	있음 연간교육시간 : 10시간
	총 공익활동 시간	8,930.85시간
	근로시간 대비 공익활동 비율	2.57%(8,930.85시간/346,417.91시간)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40.59시간(8,930.85시간:220명) ²⁾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47.50시간(8,930.85시간:188명)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85.45%(188명/220명)
	3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45%(99명/220명)
활동	소속변호사 111명 ³⁾	81.98%(91명/111명) 35.13시간(3,898.94시간:111명)
	구성원변호사 87명 ⁴⁾	88.51%(77명/87명) 47.70시간(4,150.06시간:87명)
	외국변호사(서울) 22명	90.91%(20명/22명) 44.09시간(881.85시간:20명)
	공익활동지원비	1,910,372원
	공익활동교육지원비	1,096,460원
공익활동 관련 예산	외부공익단체지원비	530,600,000원
	총액	533,606,832원

1)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 대 비공익변호사의 비율
 2) 공익활동 대상인 한국변호사 + 서울사무소 외국변호사 숫자
 3) 공익활동 대상인 한국변호사 중 소속변호사의 숫자
 4) 공익활동 대상인 한국변호사 중 구성원변호사의 숫자

분야	평가지표	2020년
활동	공익활동 수치	공익소송 81건 공익자문 72건 공익상담 5건 도움받은 사람 158명
	분야별 공익활동 현황	본문 52-61페이지 참조
	공익활동 관련 사건의 배당 방식	① 공공기관, 협력 NGO단체 등을 통한 공익소송 및 공익자문 요청, 분야별 소위원회 및 NGO 자문변호사 중심으로 NGO와 협력하여 인권·공익분야 이슈 발굴 ② 공익위원회 논의 및 승인 ③ 분야별 전문소위원회 소속 변호사에게 배당하거나 사건 관련 전문변호사 또는 내부 모집을 통한 자원자 배당
	공익활동 지원	본문 52-61페이지 참조
	공익활동의 공익인권지향성	본문 52-61페이지 참조
	평가·보상	공익활동이 평가·승진·보상에 반영되는지 여부 ① 국내·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내지 전문가) 및 직원 연 30시간 이상 공익활동 의무화 ② 소송변호사 및 직원 평가 시 공익활동 반영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분야	평가지표	2020년
기부	기부 총액	649,933,750원
	로펌 구성원 1인당 기부 액수	1,388,747원
	공익인권 관련 기부의 비중	99.97%(649,733,750원/649,933,750원)
사회 봉사	기부 현황	본문 61페이지 참조
	사회봉사활동 총 시간	3,691.84시간
	로펌 구성원 1인당 사회봉사활동 시간	7.89시간(468명)
사회봉사활동 현황	본문 60-61페이지 참조	

※ 본 지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에 따라 산출한 것입니다.
 ※ 지평 소속 국내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 220명(지방사무소·해외사무소 포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공익활동 면제를 신청한 자는 제외함).
 ※ 공익전담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소속 변호사)의 활동 시간은 제외하였습니다.
 ※ 비법률분야 공익활동은 지평의 전체 구성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 3 자 검 증 의 견 서

2020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 독자 귀중

서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2020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 (이하 "보고서")의 제3자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정보에 대한 책임은 지평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경영인증원의 책임은 계약 및 합의된 업무를 준수하고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검증 범위 및 기준

지평은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조직의 성과와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국제적 검증 기준인 AA1000AS v3 및 KMR 검증 기준인 SRV1000을 적용하였으며, Type 2 방법 및 Moderate 수준의 보증 형태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검증팀은 AA1000AP(2018)에서 제시하는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대응성(Responsiveness) 및 영향성(Impact) 원칙의 준수여부와 보고서에 기재된 하기 GRI 지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 및 품질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성 기준은 검증팀의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이 적용되었습니다.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 보고 요구사항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검증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중대성 평가 절차를 통해 도출된 중요주제의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GRI Standards 보고 원칙
-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
- 특정주제 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
- 하기 특정주제표준 경영접근방식(Management approach of Topic Specific Standards)
 - GRI 205: 반부패(Anti-Corruption)
 - GRI 402: 노사관계(Labor/Management Relations)
 - GRI 403: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GRI 404: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 GRI 412: 인권평가(Human Rights Assessment)

보고서의 보고경계 중 조직 외부 즉, 지평의 협력사, 계약자 등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검증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증방법

- 한국경영인증원 검증팀은 합의된 검증 범위에 대해 상기 기술된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중대성 평가 방법 및 결과 검토
-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성과정보 시스템, 프로세스 평가
- 보고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 보고서 성과정보에 대한 신뢰성 평가, 데이터샘플링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독립적인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신뢰성 평가

제한사항 및 극복방안

검증은 지평에서 제공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지평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질의 및 분석,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공시시스템,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등 독립적인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정보의 품질 및 신뢰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결과 및 의견

검증팀은 문서검토 및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지평과 보고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증결과, 지평의 보고서는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AA1000AP(2018)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원칙에 대한 본 검증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성 원칙

지평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대해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견해 및 기대 사항이 적절히 조직의 전략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요성 원칙

지평은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미치는 주요 이슈들의 중요성을 고유의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 원칙

지평은 도출된 주요 이슈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활동성과와 대응사례 그리고 향후 계획을 포괄적이고 가능한 균형 잡힌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지평의 대응 활동들이 보고서에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영향성 원칙

지평은 중대성 평가를 통해 파악된 주요 주제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영향을 정량화된 형태로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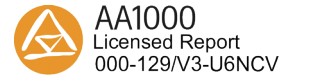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정보의 신뢰성 및 품질

검증팀은 AA1000AP(2018) 원칙 준수 여부에 더해 지속가능성 성과와 관련된 경제, 환경, 사회 성과 정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 및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데이터 샘플링 및 근거 문서 그리고 외부 출처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팀은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에서 의도적 오류나 잘못된 기술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한국경영인증원은 ISO/IEC 17021:2015(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포함한 포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지속가능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지평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09. 대한민국, 서울



대표이사 *황은규*

보고서 발행처

법무법인(유한) 지평

보고서 정보

지평은 법률 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 경영선언'의 추진 노력과 주요 성과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2020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습니다.

보고기간

이 보고서는 2020년(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직전 보고서 발행일 2020년 7월 30일)

이 보고서는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서울사무소를 주요 경계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성원에 관련한 정보는 모든 사무소의 구성원수를 반영하였습니다.

보고기준

이 보고서는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로펌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을 통해 제안한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글로벌 리포트 가이드라인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Standards(Core Option)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와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를 참고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사회적가치위원회사무국

김영수 변호사

외부 검증

보고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의 검증을 거쳤으며

검증의견서는 78~79 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The mark of responsible forestry

본 책자는 FSC 인증 친환경 용지로 만들었습니다.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2020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